

〈譯註〉

## 『舊唐書』·『新唐書』李師道·吳元濟·王承宗 등 列傳 역주

정 병 준 \*

## 〈목차〉

- I. 『구당서』 권124, 이사도전
- II. 『신당서』 권213, 이사도전
- III. 『구당서』 권145, 오원제전
- IV. 『신당서』 권214, 오원제전
- V.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
- VI.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 VII. 『구당서』 권143, 劉忬·劉濟·劉總傳
- VIII. 『신당서』 권212, 劉濟·劉總傳

## [해설]

이 역주는 唐 憲宗의 藩鎮改革을 연구하기 위한 기초자료이다. 魏博·成德·幽州·平盧·淮西라는 5개 번진(앞의 세 번진은 이른바 河北三鎮)은 당조의 통치를 거부한 대표적인 할거 번진(즉 반역 번진)으로 한때 '5鎮의 난'을 일으켜 德宗을 굴복시키기도 하였다. 이들은 헌종의 번진개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항하였지만, 헌종은 덕종과는 다른 방책을 채택하여 마침내 이들 번진을 굴복시키게 된다. 그 가장 중요한 고비를 이룬 것이 회서절도사 오원제의 토벌이고 그 정점을 이룬 것은 평로절도사 이사도의 토벌이다. 그 시기에 왕승종은 성덕절도사였고, 유제·유충

\*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은 유주절도사였다. 여기서는 역주하지 않았으나 당시 위박절도사는 田弘正이었는데, 오원제가 토벌되기 전에 현종에게 투항한 후 당조를 위해 진력하였다.

## I. 『구당서』 권124, 이사도전<sup>1)</sup>

이사도는 [李]師古의 배다른 동생이다. 그 모친은 張忠志(즉 成德節度使 李寶臣)<sup>2)</sup>의 딸이다. 이사도가 知密州事로 있을 때<sup>3)</sup> [憲宗 元和 원년(806) 윤6월]<sup>4)</sup> 이사가 죽자 그 奴가 發喪하지 않고 몰래 사람을 밀주로 보내 이사도를 맞이하여 받들었다. [8월] 조정의 명이 오랫동안 이르지 않자 이사도가 將吏와 모의하였는데, 曠자가 四境에 병사를 증강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그 判官 高沐이 강하게 저지하였고, 이에 [이사도가] 兩稅를 바치고 鹽法을 지키며 官員을 상신하겠다고 요청하고자 判官 崔承寵과 孔目官 林英을 연이어 파견하여 상주하였다. 당시 杜黃裳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이사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틈을 이용해 계획을 내어 평로를 分削하려고 하였으나 현종은 蜀川이 바야흐로 어지럽기 때문에 능히 이사

1) 『구당서』 권124, 이사도전, 中華書局標點本, 3538~3541쪽.

2) 『자치통감』 권222, 代宗 寶應 원년 11월 조, “以張忠志爲成德軍節度使, 統恆·趙·深·定·易五州, 賜姓李, 名寶臣”(7136쪽).

3)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6월 조, “初, 李師古有異母弟曰師道, …… 及師古疾篤, 師道時知密州事, 好畫鬻策(필율)”(7633~7634쪽). 정병준, 「李正己 一家 藩鎮과 高沐 -은건파와 강경파의 내부분열과 대립」, 『역사학보』 180, 2003, 134~135쪽 참조.

4)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윤6월 조, “壬戌朔, [李]師古薨”(7634쪽).

도에게 병사를 동원할 수 없다고 여겨 원화 원년 7월<sup>5)</sup> 마침내 建王 [李]審에게 節度を 遙領하게 하고 이사도를 檢校左散騎常侍·兼御史大夫·權知鄆州事·充淄青節度留後에 제수하였다. 10월 檢校工部尙書·兼鄆州大都督府長史·充平盧軍及淄青節度副大使·知節度事·管内支度營田觀察處置·陸運海運押新羅渤海兩蕃等使로 승진시켰다.<sup>6)</sup> [李]正己로부터 이사도에 이르기까지 60년 동안 鄆·曹 등 12주를 점거하였다. 무리가 자신을 따르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여 모두 嚴法을 이용하여 통제하였다. 大將이 병사를 이끌고 바깥에 주둔하는 경우에는 모두 그 妻子를 인질로 삼았다. 혹자가 조정에 귀순하려고 모의하다가 일이 누설되자 나이를 불문하고 그 가족을 모두 살해하였다. 이런 까닭에 능히 그 무리를 위협하여 父子·兄弟가 서로 계승할 수 있었다. [원화 4년(809) 윤3월 魏徵의 玄孫인 魏稠가 매우 가난하여 故第를 다른 사람에게서 지당으로 잡았는데, 평로 절도사 이사도가 私財를 내어 대신 갚아주기를 청하였다. ……].<sup>7)</sup> [원화 5년(810) 7월 檢校尙書右僕射가 되었다.<sup>8)</sup> [원화 7년(812) 8월 魏博節度

5) 『구당서』 권14, 憲宗本紀上, 원화 원년 8월 조, 418쪽;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8월 조, “…… 己巳, 以師道爲平盧留後·知鄆州事”(7635쪽).

6) 『구당서』 권14, 현종본기상, 원화 원년 10월 壬午(23일) 조, 419쪽;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10월 임오 조, 7637~7638쪽.

7) 『자치통감』 권237, 원화 4년 윤3월 조, 7657~7658쪽; 『唐會要』 권57, 翰林院, 원화 3년 조, “淄青節度李師道進絹爲魏徵子孫贖宅, 翰林學士白居易諫曰, ‘徵是陛下先朝宰相, 太宗嘗賜殿材, 成其正室, 尤與諸家第宅不同. 官中自可贖之, 而令師道掠美, 事實非宜’, 憲宗深然之”(上海古籍出版社, 1148쪽); 『구당서』 권166, 白居易傳, “又淄青節度使李師道進絹, 爲魏徵子孫贖宅, 居易諫曰, ‘徵是陛下先朝宰相, 太宗嘗賜殿材成其正室, 尤與諸家第宅不同. 子孫典貼, 其錢不多, 自可官中爲之收贖, 而令師道掠美, 事實非宜’, 憲宗深然之”(4343~4344쪽).

8) 『구당서』 권14, 현종본기상, 원화 5년 7월 조, “庚子, 王承宗, 遣判官崔遂上表自首, …… 丁未, 詔昭洗王承宗, …… 而李師道·劉濟亟請昭雪, 乃歸罪盧從史而有承宗, 不得已而行之也. 幽州劉濟加中書令, 魏博田季安加司徒, 淄青李師道加僕射, 並以罷兵加賞也. 乙卯, 幽州節度使劉濟爲其子總鳩死”(431쪽).

使 田季安이 추하고 그 아들 (田)懷諫이 스스로 知軍府事를 칭하였다. 10월 위박군이 전개안의 장수 田興(즉 田弘正)을 知軍事로 삼았다. 이 달에 위박절도사 전흥이 6주를 들어 有司에 귀순하였다.<sup>9)</sup> [원화 8년(813) 9월 병진일 淄靑의 이사도가 鶻 12를 진상하였으나 돌려보냈다].<sup>10)</sup>

[원화] 10년(815) [정월] 王師가 蔡州를 토벌하자<sup>11)</sup> [전흥정이 그 아들 (田)布를 보내 병사 3천을 거느리고 嚴綬를 도와 吳元濟를 토벌하게 하였고],<sup>12)</sup> 이사도는 賊을 보내 河陰倉을 불태우고<sup>13)</sup> 建陵橋를 잘랐다.<sup>14)</sup> 이전에 이사도는 河南府에 留邸를 두어 병사 간첩이 섞여 왕래하였으나 관리가 감히 가려내지 못하였다. 오원제가 북쪽으로 汝·鄭을 침범하였기 때문에 郊畿가 자주 경계하여 防禦兵이 모두 伊闕을 지켰는데, [8월] 이사도가 몰래 병사 수십~백 인을 그 邸에 넣어두고 궁궐을 불태우며 마음대로 죽이고 약탈하려고 모의하였다. 소를 삶아 무리를 배불리 먹인 후 다음날 실행하기로 하였는데, 그때 小將 楊進·李再興라는 자가 留守 呂元膺에게 가서 변고를 알렸다. 여원응이 이궐의 병사들을 불러 그들을 포위하였으나 반나절이 지나도 감히 進攻하지 못하였다. 防禦判官 王茂元이 한 명을 죽인 후에야 나아갔으며 어떤 자가 그 담벽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賊衆이 갑자기 나와 사람을 죽이자 둘러싼 병사들이 놀라 달아

9) 『신당서』 권7, 현종본기, 원화 7년 8월 및 10월 조, 212쪽; 『구당서』 권15, 현종본기, 원화 7년 10월 조, 443쪽; 『자치통감』 권238·239, 원화 7년 8월, 10월, 11월 조, 7694~7695쪽, 7697쪽; 『구당서』 권141, 전흥정전, “自弘正歸國, 幽·恆·鄆·蔡有齒寒之懼, 屢遣客間說, 多方誘阻, 而弘正終始不移其操”(3850쪽).

10)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8년 9월 조, 447쪽.

11)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정월 己亥 조, 7707쪽.

12)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3월 조, 7711쪽; 『구당서』 권141, 전흥정전, “元和十年, 朝廷用兵討吳元濟, 弘正遣子布率兵三千進討, 屢戰有功. 李師道以弘正效忠, 又襲其後, 不敢顯助元濟, 故絕其犄角之援, 王師得致討焉”(3850쪽).

13)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4월 甲辰 조, 7711~7712쪽.

14)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정월 조, “盜斷建陵門戟四十七枝”(7721쪽).

났다. 賊이 길거리에서 대오를 갖추고 그 처자를 포대기[囊橐]로 싣 채 甲冑로 후미를 경비하면서 행진하니 防禦兵이 감히 추격하지 못하였다. 賊은 長夏門을 나가서 옮겨가며 郊墅를 약탈하고 동쪽으로 伊水를 건너 嵩山으로 들어갔다. 여원응은 경계상의 병사들에게 큰 포상을 걸어 잡게 하였다. 수개월 후 어떤 山棚이 시장에 사슴을 팔려고 하였다가 賊을 만나 사슴을 빼앗겼다. 산봉이 달려가 그 黨을 부르고 흑자는 官軍을 데리고 함께 그들을 계곡 안으로 포위하여 모두 사로잡았다. 추궁하여 그 수괴를 잡으니 中岳寺 승려 圓靜이었다. 나이가 80여 세로 일찍이 史思明의 將이 되었는데, 신체가 장대하고 사나운 것이 보통사람이 아니었다. 처음에 잡아 힘센 자에게 쇠망치로 치게 하였으나 능히 정강이를 부러뜨리지 못하였다. 원정이 욱하며 말하길 “쥐새끼야. 사람 다리도 부러뜨리지 못하면서 감히 健兒라고 칭하는가!”라고 하고 스스로 그 발을 놓고서 부러뜨리게 하였다. 사형에 임해 말하길

내 일을 그르쳐 洛城에 피를 흐르게 하지 못하였다.

라고 하였다.<sup>15)</sup> 죽은 자가 무릇 수십 인이었다. 留守의 禦將 2인과 都亭驛의卒 5인과 甘水驛의卒 3인이 모두 몰래 이사도에게 직임[職署]을 받

15)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0년 8월 조, “丁未, 淄青節度使李師道陰與嵩山僧圓淨謀反, 勇士數百人伏於東都進奏院, 乘洛城無兵, 欲竊發焚燒宮殿而肆行剽掠. 小將楊進·李再興告變, 留守呂元膺乃出兵圍之, 賊突圍而出, 入嵩岳, 山棚盡擒之. 訊其首, 僧圓淨主謀也. 僧臨刑歎曰, ‘誤我事, 不得使洛城流血!’” (454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8월 조, 7715~7717쪽; 『구당서』 권163, 崔弘禮傳, “元和中, 呂元膺爲東都留守, 以弘禮爲從事. 時淮西吳少陽初死, 吳元濟阻兵拒命, 山東反側之徒, 爲之影援, 東結李師道謀襲東洛, 以脅朝廷. 弘禮爲元膺籌畫, 部分兵衆, 以固東都, 卒亦無患. 累除汾州·棗州刺史. 會田弘正請入覲, 請副使, 乃授弘禮衛州刺史·充魏博節度副使, 歷鄭州刺史”(4265쪽).

아 그 눈과 귀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모의부터 실패할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전에 이사도는 伊闕과 陸渾 사이에 많은 밭을 무릇 10군데나 사두고 산봉에게 집을 지어주고 의식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訥嘉珍과 門察이라는 자가 몰래 그들을 나누어 거느리며 圓靜에게 예속되었다. 이사도의 錢 천만을 가지고 거짓으로 嵩山의 佛光寺를 수리한다고 하며 자가진이 몰래 일어날 때 산 속에 불을 지르면 2縣의 山棚人이 난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추궁해 보니 자가진과 문찰은 武元衡을 해친 자였으므로 여원응이 상황을 소상히 갖추어[具狀] 황제에게 보고하였다.<sup>16)</sup> [원화 10년 12월 갑진일 李愿이 이사도의 병사 9천을 패배시키고 2천 급을 斬首하였다. 임자일 동도유수 여원응이 주청하여 三河子弟를 募置하여 宮城을 방위하였다].<sup>17)</sup> [원화 11년(816) 정월 계미일 제서를 내려 王承宗의 관작을 삭탈하고 河東·幽州·義武·橫海·魏博·昭義 6道에게 進討하게 하였다. 韋貫之가 누차 청하여 …… 라고 하였으나 황제가 듣지 않았다].<sup>18)</sup> [원화 11년 11월 鄆州 이사도에게 檢校司空이 더해졌다].<sup>19)</sup> [원화 11년

16)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8월 조, 7716~7717쪽; 『구당서』 권154, 呂元膺傳, “十年七月, 鄆州李師道留邸伏甲謀亂. 初, 師道於東都置邸院, 兵謀雜以往來, 吏不敢辨. 因吳元濟北犯, 郊畿多警, 防禦兵盡戍伊闕. 師道伏甲百餘於邸院, 將焚宮室, 而肆殺掠. 已烹牛饗衆, 明日將出. 會小將李再興告變, …… 數月, 有山棚賣鹿於市, 賊過, …… 及窮按之, 嘉珍·門察皆稱害武元衡者. 元膺以聞, 送之上都, 賞告變人楊進·李再興錦綵三百匹·宅一區, 授之郎將. 元膺因請募山河子弟以衛宮城, 從之. 盜發之日, 都城震恐, 留守兵寡弱不可倚, 而元膺坐皇城門, 指使部分, 氣意自若, 以故居人帖然”(4105~4106쪽).

17)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12월 조, 455쪽.

18)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정월 조, 7721쪽(중요 내용 있음);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1년 정월 조, 455쪽; 『唐大詔令集』 권119, 討伐上, 「討鎮州王承宗德音」, 商務印書館, 1959, 631~632쪽.

19)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1년 10월 조, “丙寅, 幽州劉總加平章事, 鄆州李師道加檢校司空. 師道聞拔凌雲柵, 乃懼, 僞貢款誠, 故有是命”(457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11월 조, “李師道聞拔陵雲柵而懼, 詐請輸款, 上以力未

12월 未央宮 및 飛龍草場에서 불이 났는데, 모두 왕승종·이사도가 用兵을 방해하기 위해 몰래 盜를 보내 불을 놓은 것이다. 당시 이사도는 鄆州에서 宮殿을 지어 僭亂을 도모하려 하였다. 완성된 후 그 해에 화재가 나서 모두 타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멸망하였다.<sup>20)</sup>

[원화 12년(817) 10월]<sup>21)</sup> 오원제가 주살되자 [원화 13년(818) 정월] 이사도는 두려워서 表를 올려 조정의 명을 따르길 구하며 三州를 할양하고 아울러 長子를 보내 入侍·宿衛하길 청하자 조서를 내려 허락하였다.<sup>22)</sup>

[원화 13년 4월] 이사도는 어리석고 우매하여[識暗] 政事가 모두 여자 종들[羣婢]에 의해 결정되었다. 여자 중 가운데 蒲大姊와 袁七娘이 謀主였는데, 이에 말하길

선친인 司徒 이래로 이 12주를 영유하였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이유[苦]도 없이 할양하는가! 지금 경내의 兵士 숫자가 수십 만 인이다. 3주를 바치지 않으면 병사를 내어 공격해 올 따름이다. 가히 힘껏 싸워 이기지 못하면 그때 땅을 할양해도 늦지 않다.

라고 하였다. 이사도가 이에 따라 할양하는 것을 그만두고 表를 올려 軍情

---

能討, 加師道檢校司空”(7725쪽). 또 同, 원화 12년 2월 조, “庚子, 敕京城居人五家相保, 以搜姦慝. 時王承宗·李師道欲阻用兵之勢, 遣人折陵廟之戟, 焚芻藁之積, 流矢飛書, 恐駭京國. 故搜索以防姦. 及賊平, 復得淄青簿領, 中有賞蒲潼關吏案, 乃知容姦者關吏也, 搜索不足以爲防. 庚申, 敕宜於許汝行營側近置行圍城, 以處賊中歸降人戶”(458쪽)라는 기사가 보인다.

20) 『구당서』 권37, 五行志, “十一年十二月, 未央宮及飛龍草場火, 皆王承宗·李師道謀撓用兵, 陰遣盜縱火也. 時李師道於鄆州起宮殿, 欲謀僭亂. 旣成, 是歲爲災並盡, 俄而族滅”(1367쪽).

21) 오원제가 평정된 것은 원화 12년 10월이고, 장안에서 참수된 것은 같은 해 11월이다(『자치통감』 권240, 7741~7742쪽, 7745쪽).

22)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정월 조, “…… 乙巳, 遣左常侍李遜詣鄆州宣慰”(7747쪽).

이 화합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다.<sup>23)</sup> 이에 [원화 13년 7월] 조서를 내려 諸軍에게 토벌하게 하였다.<sup>24)</sup> [원화] 10년(815) 12월 武寧節度使 李愿이 장수 王智興을 보내 이사도의 병사 9천을 격파하여 2천여 급을 참살하고 牛馬 4천을 획득한 후 마침내 平陰에 이르렀다.<sup>25)</sup> [원화] 11년(816) 11월<sup>26)</sup> 이사도에게 司空을 더해주고 또 給事中 柳公綽을 보내 宣慰하며 그 거동을 살펴 관용을 베풀려고 하였다.<sup>27)</sup> 이사도는 일시적으로 귀순하겠다고 하고 오래도록 악행을 저지르며 고치지 않았다. [원화] 13년(818) 7월<sup>28)</sup> 滄州節度使 鄭權이 淄靑의 賊을 齊州 福城縣에서 격파하여 5백여 급을 참살하였다.<sup>29)</sup> 10월 徐州節度使 李愬와 兵馬使 李祐가 兗州 魚臺

23)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4월 조, 7751쪽; 『구당서』 권187하, 賈直言傳, “後從事於李師道, 師道不恭朝命, 直言冒刃說者二, 輿攬說者一, 師道訖不從”(4912쪽).

24)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7월 조, 7751쪽. 정병준, 「李師道 藩鎮의 滅亡에서 張保臯의 登場으로」, 『대외문물교류』 2, 2003, 195~197쪽 참조.

25)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11월 및 12월 조, “(11월)丁酉, 武寧節度使李愿奏敗李師道之衆. 時師道數遣兵攻徐州, 敗蕭·沛數縣. [호삼성 주: 唐屬徐州. 九域志, 蕭在州西五十里. 沛在州西北一百四十里], 愿悉以步騎委都押牙溫人王智興, 擊破之. 十二月, 甲辰, 智興又破師道之衆, 斬首二千餘級, 逐北至平陰而還. [호삼성 주: (平陰)時屬鄆州. 九域志, 在州東北一百二十里]”(7720쪽); 『구당서』 권156, 王智興傳, “元和中, 王師誅吳元濟, 李師道與蔡賊謀撓沮王師, 頻出軍侵徐, 徐帥李愿以所部步騎悉委智興以抗之. 鄆將王朝晏以兵攻沛, 智興擊敗之. 賊又令姚海率勁兵二萬圍豐, 攻城甚急, 智興復擊敗之. 於賊壁獲姜美, 智興懼軍士爭之, 乃曰, ‘軍中有女子, 安得不敗? 此雖無罪, 違軍法也’, 卽斬之以徇. 累官至侍御史·本軍都押衙”(4139쪽).

26) 앞의 원화 11년(816) 11월의 기사 및 각주 참조.

27) 『구당서』 권165, 柳公綽傳, “十一年, 入爲給事中. 李師道歸朝, 遣公綽往鄆州宣諭. 使還, 拜京兆尹, 以母憂免”(4302쪽).

28) 『구당서』 권15, 憲宗本紀하, 원화 13년 7월 조, “癸未, 以新除鳳翔節度使李愬爲徐州刺史·武寧軍節度使. 甲申, 以田弘正檢校司空. 乙酉, 詔削奪淄靑節度使 李師道在身官爵, 仍令宣武·魏博·義成·武寧·橫海等五鎮之師, 分路進討”(463쪽).

29) 『자치통감』 권240, 원화 14년 정월 조, “滄州刺史李宗爽與橫海節度使鄭權不叶, 不受其節制, 權奏之. 上遣中使追之, 宗爽使其軍中留己, [호삼성 주: 此謂滄州本州之軍也] 表稱懼亂未敢離州. 詔以烏重胤代權, 將吏懼, 逐宗爽, 宗爽奔京



縣에서 賊 3천여 인을 격파하였다.<sup>30)</sup> 위박절도사 전홍정이 本軍을 이끌고 陽劉에서 황하를 건너 鄆州와 90리 떨어진 곳에 軍營을 세우고 다시 接戰하여 賊 3만여 무리를 격파하고 3천 인을 생포하였으며 器械를 획득한 것이 셀 수 없이 많았다.<sup>31)</sup> 陳許節度使 李光顏은 濮陽縣 境界[界]에서 賊을 격파하고 斗門城·杜莊柵을 점령하였다.<sup>32)</sup> 전홍정이 다시 옛 東阿縣 境界에서 賊 5만을 격파하였다.<sup>33)</sup> 諸軍이 사면에서 힘을 합쳐 누차 城柵을 함락시켰다.

이사도는 劉悟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魏博軍을 막게 하였으나 패배하였는데, [이사도가] 자주 명하여 싸우도록 재촉하였다. 군대가 나아가지 않았을 때 [이사도가] 奴를 보내 유오를 불러 일을 헤아리려고 하였다. 유오는 사람이 오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고 將吏를

---

師, 辛丑, 斬于獨柳之下”(7760쪽); 『구당서』 권162, 鄭權傳, “遷德州刺史·德棣滄景節度使. 時朝廷用兵討李師道, 權以德·棣之兵臨境. 奏於平原·安德二縣之間置歸化縣, 以集降民. 滄州刺史李宗爽與權不協, 每事多違, 不稟節制. 權奏之, 上令中使追之. 宗爽諷州兵留己, 上言懼亂, 未敢離郡, 乃以烏重胤鎮橫海, 代權歸朝. 滄州將吏懼, 共逐宗爽. 宗爽方奔歸京師. 詔以悖慢之罪, 斬於獨柳之下”(4246쪽).

- 30) 『구당서』 214, 오원제전 역주의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董重質에 대한 각주 참조.
- 31) 『구당서』 권170, 裴度傳, “十三年, 李師道翻覆違命, 詔宣武·義成·武寧·橫海四節度之師與田弘正會軍討之. 弘正奏請取黎陽渡河, 會李光顏等軍齊進. 帝召宰臣於延英議可否, 皆曰, ‘閫外之事, 大將制之, 既有奏陳, 宜遂其請’. 度獨以爲不可, 奏曰, ‘魏博一軍, 不同諸道. 過河之後, 却退不得, 便須進擊, 方見成功. ……’, 上曰, ‘卿言是矣’, 乃詔弘正取楊劉渡河. 及弘正軍既濟河而南, 距鄆州四十里築壘, 賊勢果蹙. 頃之, 誅師道”(4420~4421쪽).
- 32) 『구당서』 권161, 이광안전, “朝廷東討李師道, 授光顏義成軍節度使. 至鎮, 尋赴行營. 數旬之內, 再敗賊軍於濮陽, 殺戮數千人, 進軍深入”(4221쪽).
- 33) 『구당서』 권181, 史憲誠傳, “元和中, 田弘正討李師道, 令憲誠以先鋒四千人濟河, 累下其城柵. 復以大軍齊進, 乘勢逐北, 魏之全師迫于鄆之城下. 師道窮蹙, 劉悟斬首投魏軍. 錄功, 超授憲誠兼中丞”(4685쪽); 『구당서』 권181, 何進滔傳, “弘正奉詔討鄆州, 破李師道, 時進滔爲衙內都知兵馬使, 以功授兼侍御史. 大和三年, 軍衆害史憲誠, ……”(4687쪽).

## 불러서 모의하여 말하길

위박의 병사는 강하여 승세를 났을 때 나가 싸우면 반드시 우리 병사를 패배시킬 것이고, 나가 싸우지 않아도 죽는다. 지금 천자께서 주살하려는 것은司空 한사람뿐이다. 유오와 공들이 모두 사지로 몰리고 있는데, 어찌禍를 바꾸어福을 만들지 않겠는가. 사신을 죽이고 병사를 이끌고 鄆州로 달려가大功을 세워 富貴를 구하자.

라고 하니 무리가 모두 좋다고 하였다. 이에 그 사신을 맞이하여 참살하고 마침내 이사도의 소환장(追牒)을 가지고 병사를 이끌고 운주로 달려갔다. 밤이 되어 門에 이르러 이사도의 소환장을 보여주니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병사들이 이어서 진입하여 毬場에 이르고 그 內城을 포위하여 불로 공격하였다. 이사도를 사로잡아 그 머리를 잘라서 위박군에게 보내니 원화 14년(819) 2월이었다. 이 달에 전홍정이 京師로 [그 머리를] 바치니 천자가 左右의 軍에 명해 머리를 받는 의식(受馘儀)과 같게 하여 먼저 太廟와 郊社에 바친 후 興安門으로 나가 그것을 받으니 百僚가 축하하였다.<sup>34)</sup>

앞서 東軍의 諸道行營節度가 逆賊의 將 夏侯澄 등 모두 47인을 생포하자 [원화 13년(818) 12월]<sup>35)</sup> 조서를 내려 말하길

兇黨에 附麗하여 王師에 항거하였으니, 나라의 常刑에 의하면 모두 誅戮

34)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4년 2월 조, “壬戌(14일), 田弘正奏, 今月九日, 淄青都知兵馬使劉悟斬李師道并男二人首請降, 師道所管十二州平. 甲子(16일), 上御宣政殿受賀. 己巳(21일), 上御興安門受田弘正所獻賊俘, 羣臣賀於樓下”(466쪽).

35)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3년 12월 조, “戊寅, 軍前擒到李師道將夏侯澄等四十七人, 詔並釋付魏博及義成軍收管, 要選賊中者, 則量事優給放還”(465쪽).

에 처하게 되어 있다. 짐은 [이들이] 오랫동안 汚俗에 있으면서 모두 협박을 받았고, 하물며 특별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투항[轉禍]의 마음을 품었다고 해도 투항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정상이 가히 불쌍하니 짐이 차마 죽일 수 없다. 하물며 三軍과 百姓은 누가 나의 신민이 아니겠는가, 詔令의 頒行에서 죄는 이사도에 그친다. 바야흐로 도탄에서 구하고자 한 것이니 그 性命을 살려주도록 한다. 진실로 법을 굽히는 것으로 은혜를 알길 바란다. 모두 마땅히 특별히 석방하고 遞送하여 魏博 및 義成의 行營에 보내 각각 절도사로 하여금 거두어 驅使하도록 한다. 만약 父母와 血屬이 아직 賊 속에 있거나 羸老·疾病하여 정상이 절실하게 歸還해야 하는 자는 일을 헤아려 풀어주고 관대하게 베풀어 의심하지 말도록 하라.

고 하였다. 하후징 등이 行營에 이르자 賊이 염탐하여 알고 전하여 알리니 叛徒가 모두 朝恩에 감동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유오가 그 모의를 실행할 수 있었다.<sup>36)</sup>

이사도의 처 魏氏 및 작은 아들은 모두 掖庭에 배치되었다. 堂弟인 [李]師賢·師智는 春州에 配流되고, 조카 [李]弘巽은 雷州에 配流되었다. [원화 14년 3월] 조서를 내려 그 12주를 3절도로 나누고 馬總·薛平·王遂에게 각각 다스리게 하였다.<sup>37)</sup> 또 재상 崔羣에게 명해 비문을 찬하여 그 공적을 기록하게 하였다.

36) 『구당서』 권187하, 賈直言傳, “及劉悟斬師道, 節制鄭滑, 得直言於禁錮之間, 又嘉其所爲, 因奏置幕中. 後遷於潞, 亦與之俱行. 悟纖微乖失, 直言必盡理箴規, 以是美譽日聞於朝. 穆宗 ……”(4912~4943쪽).

37)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4년 3월 조, 466~467쪽; 『구당서』 권164, 楊於陵傳, “會誅李師道, 分其地爲三鎮, 朝廷思有所制置, 以於陵兼御史大夫, 充淄·青十二州宣慰使, 還奏合旨”(4294쪽); 『구당서』 권124, 薛平傳, “及平李師道, 朝廷以東平十二州析爲三道, 以淄·青·齊·登·萊五州爲平盧軍, 以平爲節度·觀察等使, 仍押新羅·渤海兩蕃使”(3526쪽).

國家는 天寶 말에 安祿山이 먼저 兩河에 반란을 일으켜 [代宗] 寶應 원년<sup>38)</sup> 王師가 史朝義를 평정할 때까지 그 장수 薛嵩·李懷仙·田承嗣·李寶臣 등이 僞命을 받아 州郡을 거느렸는데, 조정이 전쟁을 싫어하여 僕固懷恩의 청에 따라 [그들에게] 관작을 주었다. 侯希逸이 軍人에게 축출되고 이정기가 또 齊·魯의 땅을 점거하여 번갈아가며 굳게 단결하면서 서로 혼인을 맺고 職貢을 바치지 않고 法습을 행하지 않는 것이 거의 관례가 되었다. 또한 모두 그 아들을 副大使로 삼아 父가 죽으면 아들이 계승하고 三軍의 청이라고 보고하고 또한 大將이 [번수를] 살해하고 자립한 경우도 있었다. 安·史 이후 貞元에 이르기까지 조정은 대부분 優容에 힘쓰고 매번 멋대로 세습한 것을 들으면 그에 따라 제수해 준 지 60여 년이 흘렀다 兩河는 反側之俗이라고 칭해졌다. 憲宗이 사람을 알아보고 잘 위임하여 亂迹을 削平하니 양하가 다시 王土가 되었다.<sup>39)</sup> 이사도의 처 魏

38) 사조의가 평정된 것은 대종 廣德 원년(763) 정월이다.

39) 『구당서』 권156, 韓弘傳, “十四年, 誅李師道, 收復河南二州, 弘大懼. 其年七月, 盡攜汴之牙校千餘人入覲, 對於便殿, 拜舞之際, 以其足疾, 命中使掖之. …… 進絹三十五萬匹…緇三萬匹…銀器二百七十件, 三上章堅辭戎務, 願留京師奉朝請”(4135쪽); 『구당서』 권157, 王彥威傳, “朝廷自誅李師道, 收復淄青十二州, 未定戶籍, 乃命彥威充十二州勘定兩稅使. 朝法振舉, 人不以為煩. 以本官兼史館修撰”(4155쪽); 『구당서』 권161, 王沛傳, “[李]光顏受詔討鄆寇. 及李師道誅, 詔分許州兵戍于邠, 以沛為都將, 救鹽州, 擊退吐蕃. 以功加寧州刺史, 遷陳州. 李齊反, 詔沛兼忠武節度副使, 率師討齊. 齊平, 加檢校右散騎常侍, 遷兗海沂密節度·觀察等使. 此邦新造, 人情獷驚, 沛明申法令, 選蒐軍政, 期年大理”(4225쪽); 『구당서』 권162, 曹華傳, “及李師道誅, 分所管十二州為三鎮. 王遂為沂兗海觀察使, 褊刻不能馭衆, 為牙將王弁所害, 朝廷遂授華左散騎常侍·沂州刺史·沂兗海觀察使. 華至鎮, 視事三日, 宴將吏, 伏甲士千人於幕下. …… 凡鄆一千二百人, 立斬于庭, 血流成渠. …… 初, 李正己盜有青·鄆十二州, 傳襲四世, 垂五十年, 人俗頑驚, 不知禮教. …… 乃躬禮儒士, 習俎豆之容. …… 李齊叛於大梁, 華不俟命赴討. 齊方遣兵三千人取宋州, 華逆擊敗之. 由是, 宋·毫不從齊亂. …… 以河朔拒命, 移華為滑州刺史·義成軍節度使”(4243~4244쪽); 『구당서』 권169, 王涯傳, “[文宗大和四年正月, 守吏部尚書·檢校司空, 復領鹽鐵轉

氏는 원화 15년(820)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다.<sup>40)</sup>

## II. 『신당서』 권213, 이사도전<sup>41)</sup>

이사도는 이사고의 이복동생이다. 이사고가 일찍이 “민간의 疾苦를 모른다고 해도 衣食의 유래는 알아야 한다”고 하며 [이사도에게] 密州를 다스리게 하였다. 이사고가 병들자 측근[近親]인 高沐과 李公度 등을 불러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잇게 하겠는가?”라고 물으니, 두 사람이 대답하지 못했다. 이사고가

어찌 人情 때문에 이사도에게 맡길 것인가? 그는 군복을 입은 적이 없고 작은 재주로 자신을 뽐내니, 우리 종족을복멸시킬까 우려된다. 公 등은 잘 살펴 헤아리길 바란다.

---

運使. 其年九月, 守左僕射, 領使. 奏李師道前據河南十二州, 其兗·鄆·淄·青·濮州界, 舊有銅鐵冶, 每年額利百餘萬, 自收復, 未定稅額, 請復係鹽鐵司, 依建中元年九月敕例制置, 從之”(4404쪽).

40)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4년 5월 조, “敕李師古妻裴氏·女宜娘於鄧州安置, 李宗爽妻韋氏放出掖庭, 坐李師道族人籍沒, 上愍之, 宥以輕典”(468쪽); 『구당서』 권159, 崔羣傳, “十四年, 誅李師道, 上顧謂宰臣曰, ‘李師古雖自襲祖父, 然朝廷待之始終. 其妻於師道即嫂叔也, 雖云逆族, 若量罪輕重, 亦宜降等. 又李宗爽雖抵嚴憲, 其情比之大逆亦有不同. 其妻土族也, 今與其子女俱在掖廷, 於法皆似稍深. 卿等留意否?’. 羣對曰, ‘聖情仁惻, 罪止元兇. 其妻近屬, 倘獲寬宥, 實合弘煦之道. 於是師古妻裴氏·女宜娘, 詔出於鄧州安置. 宗爽妻韋氏及男女先沒掖廷, 並釋放, 其奴婢·資貨皆復賜之”(4188쪽). 『신당서』 이사도 전에는 이사도가 살해되기 직전 裴氏에게 말하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41) 『신당서』 권213, 이사도전, 5992~5995쪽.

라고 말하였다. [현종 원화 원년(806) 윤6월] 이사가가 죽자 고목과 이공도는 집안 사병[家奴兵]과 함께 이사도를 세우고 조정에 임명을 청하였다. 당시 制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사도는 군대를 내어 경계[境]를 지키고자 하였으나 고목이 간쟁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글을 올려[上書] 兩稅를 받들고 鹽法을 준수하며 조정에 관리 파견을 청한다고 하였다. 재상 杜黃裳은 그 권력을 삭감[撓削]하려고 하였으나, 현종은 바야흐로 劉闢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동쪽을 토벌할 겨를이 없었다. 그 때문에 [같은 해 8월] 建王 [李]審을 節度大使에 임명하고 이사도를 知留後로 삼았다. 그 해에 檢校工部尙書를 더해주고 副大使로 삼았다. 이정기 이래 비록 겉으로는 王命을 받들었다고 해도 亡叛을 불러 모으고 조정에 죄를 얻은 자를 후하게 받아들였다. 嚴法으로 아래를 통제하고 무릇 임무를 주어 파견할[付遣] 때는 반드시 그 妻子를 인질로 삼고 귀순을 도모하면 그 가족을 모두 죽였다. 이리하여 능히 무리[土衆]를 협박하여 3세를 전할 수 있었다.

황제가 蔡(즉 회서의 오원제)를 토벌할 때 조서를 내려 諸道の 군대를 동원하였으나 郾은 들어있지 않았다. 이사도는 병사 2천을 뽑아 壽春으로 보내며 겉으로 王師를 돕는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蔡를 구원하려고 하였다. 亡命少年이 이사도에게 계책을 내어 말하길

河陰은 江·淮에서 委輸하는 곳이고, 河南은 帝都이다. 청컨대 하음의 식량창고를 불태우고 洛의 壯士를 모집하여 궁궐을 겁탈하면 바로 조정이 腹心の 질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니 이는 蔡를 구원하는 하나의 기책이다.

라고 하였다. 이사도가 이에 사람[客]을 보내 河陰 漕院의 錢 30만 緡과 米 수만斛, 창고 100여 區를 불태웠다. 또 흑자가 이사도에게 말하길

황제는 비록 蔡를 토벌하는 데 뜻이 있지만, 모략은 모두 재상에게서 나온

다. 武元衡이 황제의 신임을 얻고 있으니 원컨대 [漢代] 袁盎의 事를 본받으면 이후의 재상은 반드시 두려워서 군대를 거두길 청하고 이리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蔡의 포위가 풀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사람을 보내 무원형을 살해하고 裴度에게 상해를 가하였다.<sup>42)</sup>

이전에 이사도는 東都에 邸(즉 進奏院)을 두고 伊闕·陸渾 사이에 田을 많이 사서 山棚에게 베풀어 주며 軍장 訥嘉珍과 門察를 보내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嵩山의 승려 圓靜에게 모의하게 하였다. 원화 10년 저택 안에서 사졸에게 크게 향연을 베풀어 소를 잡고 술을 내었으며 무기를 옷 속에 숨겨두었는데, 그 안의 어떤 병졸이 관부에 그 사실을 고발하였다. 留守 呂元膺이 병사를 거느리고 저택을 엄습하자 賊이 갑자기 나와 畿部를 옮겨가며 약탈하면서 산중으로 들어간 지 수개월이 되었을 때 산봉이 시장에 팔려야 할 것을 빼앗았는데, 산봉이 화가 나서 官軍을 데리고 와서 습격하여 모두 죽였다. 원정은 나이가 80여 세였는데, 일찍이 史思明의 將이 되었고 날래고 사나운 것이 남달랐다. 사로잡힌 후 力士가 그 정강이를 망치로 쳤으나 부러뜨리지 못하자 욕하며 말하길 “이 녀석, 사람의 다리도 부러뜨리지 못하면서 健兒라고 하느냐!”라고 하고 스스로 그 발을 올려놓고 부러뜨리게 하였다. 죽음에 임해 탄식하여 말하길

내 일을 그르쳐서 洛城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였다. 당시 留守의 防禦將과 都亭驛의 史 수십 인이 모두 몰래 이

42) 『구당서』 권170, 裴度傳, “十年六月, 王承宗·李師道俱遣刺客刺宰相武元衡, 亦令刺度. 是日, 度出通化里, 盜三以劍擊度, …… 度已墮溝中, 賊謂度已死, 乃捨去. 居三日, 詔以度爲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4414쪽).

사도의 罷職을 수여받아 염탐하고 살폈으므로 [반역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끝까지 조사하니 자가진·문찰이 武元衡을 살해한 자였다. 또 鹽鐵使 王播는 자가진이 숨긴 弓材 5천과 建陵에서 자른 戟 47개를 얻었다.

앞서 이사도는 오원제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劉晏平을 셋길로 淮西로 달려가게 하였다. 오원제는 날마다 그와 연회를 베풀며 두텁게 친교를 맺었다. 유안평이 돌아와 알리기를 오원제는 군사 수만을 바깥에 보내놓고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妻妾과 유희를 즐기고 있으니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사도는 본래 蔡에 의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그 말을 듣고 노하여 다른 일을 핑계 삼아 유안평을 살해하였다.<sup>43)</sup> [원화 11년(816) 11월] 李光顏이 凌雲柵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크게 두려워하고 사신을 보내 歸順하였다. 하지만 황제는 병사를 나누어 두 도적을 상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기고 給事中 柳公綽에게 명해 慰撫하게 하고 檢校司空을 더해 주었다.

[원화 12년(817) 10월] 蔡가 평정되자 또 [원화 13년(818) 정월 6일] 比部員外郎 張宿을 보내 영역을 분할하고 아들을 인질로 보내도록 권유하였다.<sup>44)</sup> 장숙이 말하길

공이 지금 국가에 귀순하면 ① 宗姓이어서 尊卑로 논하면 황제가 叔父에 해당하므로 굴종[屈]하지 않은 첫 번째이다. ② 12주를 들어 30여 주의 천자를 섬기고 北面하여 藩을 칭하는 것이므로 굴종하지 않은 두 번째이다. ③ 50년 동안 爵을 세습한 신분으로 200년 천자에게 신하를 칭하는 것이므로 굴종하지 않은 세 번째이다. 지금 반란의 정황이 이미 드러났으나 황제께서 여전히 스스로 살피는 것을 허락하여 마땅히 아들을 보내 宿衛하게 하고 영역을 분할

43)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11월 조, 7745쪽.

44)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3년 정월 조, “庚寅(6일), 敕李師道頻獻表章, 披露懇誠, 宜令諫議大夫張宿往彼宣慰”(462쪽).



하여 속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사도가 이에 3주를 바치고 아들 [李]弘方을 보내 入侍하게 하겠다고 하였다. 장숙이 돌아간 후 이사도가 중간에 후회하고 諸將을 불러 논의하자 모두가 말하길

蔡는 數州를 거느리고 3~4년을 싸운 후 패배하였다. 공께서는 지금 12주를 거느리고 있는데, 무슨 우려가 있는가?

라고 하였지만, 大將 崔承度가 홀로 앞으로 나와 말하길

공께서는 처음에 諸將을 심복으로 여기지 않다가 지금 병사를 위임하니 그들은 모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다. 조정에서 1漿 10餅으로 유인하면 곧 가버릴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사도가 화를 내어 최승도를 京師로 보낸 후 [경사의] 候吏에게 그가 귀환할 때를 기다려 참살하라고 하였다. 최승도는 客省에서 명을 기다리고 감히 돌아가지 못하였다.

황제는 그가 약속을 어기자 [원화 13년 정월 21일] 左散騎常侍 李遜을 보내 깨우치게 하였다.<sup>45)</sup> [4월 이손이] 이르자 이사도는 병사를 장엄하게 꾸미고 만났다. 이손이 꾸짖어 말하길 “앞서 이미 약속하고 지금 어기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천자에게 상주할 말을 원한다”라고 하였다. 이사도가 허락하였으나 나약하고 사리에 어두워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였다.

45)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정월 조, “及淮西平, 師道憂懼, 不知所爲. 李公度及牙將李英曇因其懼而說之, 使納質獻地以自贖. 師道從之, 遣使奉表, 請使長子入侍, 并獻沂·密·海三州. 上許之. 乙巳(21일), 遣左常侍李遜詣鄆州宣”(7746쪽).

私奴婢 노파가 다투어 말하길

돌아가신 司徒의 토지를 어찌 하루아침에 바치려는 것인가? 지금 3주를 바치지 않아도 전쟁이 일어날 뿐이다. 만약 이기지 못하면 그때 땅을 할양해도 늦지 않다.

라고 하였다. 이사도는 이에 上書하여 군대가 복종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붙였다.<sup>46)</sup> 황제가 노하여 조서를 내려 그 官을 삭탈하고 諸軍에 조서를 내려 나아가 토벌하게 하였다. ① 武寧節度使 李愿은 將 王智興을 보내 그 무리를 격파하여 2천 급을 참살하고 馬牛 4천을 획득한 후 땅을 공략하여 平陰에 이르렀다. ② 橫海節度使 鄭權은 福城에서 싸워 5백 급을 참살하였다. ③ 武寧의 將 李祐은 魚臺에서 싸워 패배시켰다. ④ 宣武節度使 韓弘은 考城을 함락시켰다. ⑤ 淮南節度使 李夷簡은 李聽에게 명해 海州로 달려가게 하니 流陽·朐山을 함락시키고 東海로 나아가 지켰다.<sup>47)</sup> ⑥ 魏博節度使 田弘正은 직접 병사를 거느리고 陽劉에서 황하를 건너 鄆과 40리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세우고 다시 접전을 벌여 3만 무리를 격파하고 3천 인을 생포하였다. ⑦ 陳許節度使 李光顏은 濮陽를 공격하여 斗門·杜莊 2屯을 함락시켰다. ⑧ 전홍정은 또 東阿에서 싸워 그 무리 5만을 격파[殘]하였다. 이사도는 패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놀라 병이 되었

46)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4월 조, “李遜至鄆州, 師道大陳兵迎之, 遜盛氣正色, 爲陳禍福, …… 遜察師道非實誠, 歸, 言於上曰, ‘師道頑愚反覆, 恐必須用兵.’ 旣而師道表這軍情, 不聽納質割地. 上怒, 決意討之”(7750쪽); 『구당서』 권155, 李遜傳, “元和十三年, 李師道效順, 命遜爲左散騎常侍, 馳赴東平諭之. 師道得詔意動, 卽請效順, 旋爲其下所惑而止. 遜還, 未幾, 除京兆尹, 改國子祭酒”(4124쪽).  
 47) 『구당서』 권133, 李聽傳, “元和中, 討李師道, 聽爲楚州刺史, 統淮南之師. 鄆人素易淮軍, 聽潛訓練, 出其不意, 趨海州, 據險要, 破流陽兵, 降朐山戎, 懷仁·東海兩城望風乞降, 山東平”(3683쪽).

기 때문에 李祐가 金鄉을 함락시켰을 때 좌우가 감히 알리지 못하였다.

앞서 [이사도는] 大將 劉悟를 보내 陽穀에 주둔시켜 위박군을 막게 하였다. 하지만 유오가 지체한다고 의심하자 유오는 모면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병사를 이끌고 반대로 성을 공격하였다. 이사도가 새벽에 그 소식을 듣고 그 형수(嫂) 裴 씨에게 말하길 “유오 군사가 反하였다. 장차 民이 되길 구하여 墳墓를 지키겠다”라고 하고 [李]弘方과 함께 뒷간(溷間)에 숨었으나 병사들이 곧 생포하였다. 이사도가 유오를 만나길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고, 또 경사로 보내주길 청하자 유오가 사람을 보내 말하길 “司空은 지금 죄수가 되었는데, 무슨 면목으로 천자를 뵈 것인가!”라고 하였다. 여전히 俯仰하며 애걸하자 이홍방이 말하길 “빨리 죽길 바란다”라고 하였고 이에 함께 참살하여 머리를 경사로 보냈다. 그 시체를 기시하니 감히 거두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士 英秀가 성 왼쪽에 殮하고 馬摠이 이르러 士禮로 다시 장사지냈다.

이전에 이사가가 유오를 만나고 말하길 “훗날 필시 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전홍정이 황하를 건널 때 그 將 夏侯澄 등 47인을 생포하였는데, 조서를 내려 모두 사면하고 繒絮를 주며 魏博·義成軍에 예속시키고 또 부모가 있어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관용을 베풀어 돌아가게 하였다. 賊이 모두 감격해하며 서로 알렸고 이로 인해 유오가 능히 그 모의를 행할 수 있었다. 이사도의 머리가 전홍정의 군영에 전달되자 하후징을 불러 확인하게 하였는데, 하후징은 눈알의 먼지를 훔으며 오랫동안 통곡하였다. 유오는 평소 이사도의 처 魏 씨와 문란하였는데, 거짓으로 鄭公 [魏]徵의 후예라고 하여 죽이지 않고 掖廷에 몰입시켰다. 다른 宗屬은 모두 멀리 유배보냈다[遠徙]. 유오는 유일하게 표를 올려 이사가의 아들 [李]明安을 朗州 司戶參軍으로 삼았다. 親將인 王承慶·[王]承宗 형제는 이사가가 兄의 딸을 처로 시집보냈으나 몰래 左右와 약속하여 병사를 열병할 때를 이용하여 이사도를 사로

잡기로 하였다가 마침 유오가 들어왔기 때문에 徐州로 달아나 조정에 귀순하였다.

### Ⅲ. 『신당서』 권145, 오원제전<sup>48)</sup>

오원제는 [吳]少陽의 長子이다. 처음에 試協律郎·兼監察御史·攝蔡州刺史가 되었다. [헌종 원화 9년(814) 윤8월] 父가 죽자 發喪하지 않고 병에 걸렸다고 보고하고 거짓으로 오소양의 表를 만들어 오원제가 兵務를 주관하게 해 주길 청하였다.<sup>49)</sup> 황제가 醫工을 보내 보살피게 하자 오소양의 병이 나았다고 하며 보여주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오소양의 判官 蘇兆·楊元卿 및 그 將 侯惟清이 일찍이 함께 오소양에게 朝覲하게 하는 계획을 꾀했지만, 오원제가 스스로 군대를 다스린 후 兇暴하고 義가 없으며 오로지 軍中の 兇悍한 무리와 가까이 하였다. [9월 오원제는] 평소 소조를 좋게 여기지 않았으므로 목 졸라 살해하여 그 시신을 가족에게 보내고 후유청을 형틀에 채워 가두었다. 그때 조정에서는 후유청이 이미 죽었다고 잘못 전해 듣고 兵部尙書로 추증하고, 蘇兆를 右僕射로 추증하였다. 양원경은 그 전에 상주하는 일로 경사에 있다가 淮西 敬략의 일을 재상 李吉甫에게 모두 말하였다. 앞서 오소양이 병들었다고 보고되자 양원경은 무릇 회서의 사신으로 오가는 道路에 있는 자는 현지에서 모두 구류하게 하도록 청하였다. 오소양이 죽은 지 무릇 40일이 되었으나 조회를 거두지[輟朝] 않고 단지 將을 바꾸고 병사를 바깥에 증강하여

48) 『신당서』 권145, 오원제전, 3948~3952쪽.

49) 『신당서』 권7, 헌종본기, 원화 9년 윤8월 조, 214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9년 윤8월 조, 7705~7706쪽.

대비할 뿐이었다. 그 邸吏가 어쩌다 董重質이 이미 오원제를 죽이고 그 가족을 모두 죽였다고 잘못 전하였는데, 이길보가 재빨리 대면을 청해 拜賀하자 이에 輟朝하였다. 며칠 후 오원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賊의 陰計가 이미 세워져 병사들이 사망으로 나가 미친 듯이 사납게 굴었으나 저지할 수 없었다. 舞陽[縣]을 도륙하고 葉縣을 불태우고 魯山·襄城[縣]을 공격하며 약탈하였다. 汝州·許州 및 陽翟 사람들이 많이 山谷과 荊棘 사이로 달아나 숨었으며 그 살상되거나 위협에 몰린 지역이 천 리나 되어 關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sup>50)</sup>

[원화 9년 10월 中書侍郎·同平章事 趙公 이길보가 흥거하였다].<sup>51)</sup> 10월 陳州刺史 李光顏을 忠武軍節度使로 삼고, 또 山南東道節度使 嚴綬를 申光蔡等州招撫使에 임명하며 內常侍 崔潭峻에게 엄수의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다.<sup>52)</sup> [원화] 10년(815) 정월 엄수의 군대가 賊의 서쪽 경계에 맞닿았다. [같은 달] 조서를 내려 말하길

오원제는 인륜을 거스르고 天常을 뒤집어 父喪을 치르지 않고 멋대로 軍政을 다스렸다. 詔旨를 내렸으나 전혀 謙恭하지 않고 一方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三軍의 무리를 협박한다. 오소양은 일찍이 절도사에 임명되었으므로 그를 애도하여 弔祭를 펼치고 使臣을 보냈다. 하지만 [오원제는] 封疆을 확대하고 마침내 [사신을] 稽阻하여 조정의 도리를 차단하고 父子의 은혜를 망각하였다. 도리어 舞陽[縣]을 엄습하여 吏卒을 살상하고 葉縣을 불태워 閭閻을 어지럽히고 멋대로 약탈을 자행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짐은 상을 베푸는 도

50) 『자치통감』 권239, 원화 9년 9월 조, 7706~7707쪽;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9년 9월 조, “淮西節度使吳少陽卒, 其子元濟匿喪, 自總兵柄, 乃焚劫舞陽等四縣. 朝廷遣使弔祭, 拒而不納. …… 贈尙書右僕射”(450쪽).

51) 『자치통감』 권239, 원화 9년 10월 조, 7707쪽.

52) 『자치통감』 권239, 원화 9년 10월 조, 7707쪽.

리를 생각하며 藩帥의 집안을 손상하지 않으려 하여 忠順의 길을 받아들여 顯榮의 위치에 있게 하려고 한다. 아직 飭怒하지 않고 여전히 포용하려고 다시 詔書를 내려 招撫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해독이 더욱 심해지고 간악한 마을을 고치지 않고 壽春 서남으로 또 鎭柵을 함락시켰다.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지르고 난폭하게 재앙을 만든다. 하늘과 땅이 용서하지 않고 사람과 신이 함께 버리니 실로 부득이하게 군대를 일으킨다. 오원제가 지닌 관작은 모두 삭탈하고 宣武·大寧·淮南·宣歙 등 道の 兵馬에게 명해 합세하게 하고, 山南東道 및 魏博·荊南·江西·劍南東川의 병마는 鄂岳<sup>53)</sup> 과 計會하고, 東都防禦使와 懷鄭汝節度 및 義成의 병마는 기각으로 서로 호응하여 기일을 정해 나아가 토벌하라.

라고 하였다.<sup>54)</sup>

[원화 10년] 2월 엄수의 군대가 적의 습격을 받아 磁丘에서 패하고 물러나 唐州를 지켰다.<sup>55)</sup> [3월 田弘正이 그 아들(田)布를 보내 병사 3천을 거느리고 엄수를 도와 오원제를 토벌하게 하였다].<sup>56)</sup> 4월 이광안이 賊의 무리를 격파하자 오원제가 사람을 보내 鎭州 왕승종과 淄鄆 이사도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두 [藩]帥가 조정에 表를 올려 오원제의 죄를 사면하

53) 『구당서』 권165, 柳公綽傳, “九年, 吳元濟據蔡州叛, 王師討伐, 詔公綽以鄂岳兵五千隸安州刺史李聽, 率赴行營. …… 公綽自鄂濟湏江, 直抵安州, 李聽以廉使之禮事之. …… 卽署聽爲鄂岳都知兵馬使·中軍先鋒·行營兵馬都虞候, 三牒授之. 乃選卒六千屬聽, …… 鄂軍旣在行營, 公綽時令左右省問其家. …… 故鄂人戰每克捷”(4302쪽).

54)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정월 조, 452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정월 조, “…… 己亥, 制削元濟官爵, 命宣武等十六道進軍討之. 嚴綬擊淮西兵, 小勝, 不設備, 淮西兵夜還襲之”(7707쪽).

55)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2월 조, “…… 詔鄂岳觀察使柳公綽以兵五千授安州刺史李聽, 使討吳元濟, ……”(7707~7708쪽).

56)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3월 조, 7711쪽.

길 청하였으나 朝旨를 내려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로부터 兩河의 賊帥는 자신의 소재지에서 몰래 행동하여 王師를 방해하려고 하였다. 5월(4월?) 왕승종과 이사도가 도적을 보내 河陰倉을 불태우자<sup>57)</sup> [5월] 御史中丞 裴度에게 조서를 내려 군대 앞으로 가서 깨우치게 하고 전쟁[用兵]의 형세를 관찰하게 하였다. 배도가 돌아와 상주하여 말하길 “신이 諸將을 보건대 단지 이광안이 勇義하고 마음을 다하니 반드시 공을 세울 것이다”라고 하니 황제의 마음이 매우 기뻐하였다. 다음날 이광안이 상주하여 賊을 時曲에서 대파하였다고 하자 황제가 말하길 “배도가 이광안을 알아본 것이 가히 지극하다”라고 하였다.<sup>58)</sup> 이에 [같은 달] 배도를 兼刑部侍郎으로 삼았다.<sup>59)</sup> 이로부터 中外가 서로 축하하여 결코 賊을 사면하지 않기로 하고 천하의 군사를 徵[發]하여 申·蔡의 경계[郊]를 둘러싼 것이 대소 10여 鎮이었다. [같은 달] 헌종은 이길보가 죽은 후 用兵의 일을 모두 武元衡에게 맡겼는데, 이사도가 양성한 客이 이사도에게 무원형을 제거하라고 유세하자(축약) 이사도가 그렇게 여기고 자금을 주어 파견하였다. 왕승종이 牙將 尹少卿을 파견하여 일을 상주할 때 오원제를 위해 유세하였다. 윤소경이 中書에 이르렀는데, 辭旨가 불손하였기 때문에 무원형이 꾸짖어 보냈다. 왕승종이 또 上書하여 무원형을 비방하였다.<sup>60)</sup> 6월 왕승종과 이사도가 도적을 京城에 매복시켜 재상 무원형과 中丞 배도를 살해하였는데, 무원형이 먼저 살해되고 배도는 중상을 입었으나 죽음을 면하였다. 헌종이 매우 노하여 즉시 배도를 재상으로 삼고 淮右에 대한 군사의 일을 모두 맡겼다.<sup>61)</sup> 7월(8월?) 이사도가 嵩山 승려 圓淨에게 山賊과 留邸兵을 연

57)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4월 조, 7711~7712쪽.

58)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5월 조, 7712~7713쪽(韓愈의 上言도 포함).

59)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5월 조, 452쪽(임명 이유도 설명).

60)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5월 조, 7713쪽.

61)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6월 조, 7713~7714쪽(상세함).

결시켜 東都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먼저 일이 발각되어[事敗] 화를 벗어났다.<sup>62)</sup> [11월] 嚴綬가 파직되었다.<sup>63)</sup> 이에 [원화 10년 9월] 汴州節度使 韓弘을 淮右行營兵馬都統에 임명하고 高霞寓가 유명하므로 唐鄧節度에 기용하였다.<sup>64)</sup>

[원화 11년(816) 정월] 계미일 왕승종이 가진 관작을 삭탈하고 세습한 封邑을 (王)武俊의 아들 金吾將軍 (王)士眞에게 하사하고, 河東·河北道 諸鎮에게 병사를 내어 進討하게 하였다. 갑신일 盜가 建陵 門戟 40竿을 잘랐다. 갑자일 李光顔이 賊을 격파하였다고 상주하였다.<sup>65)</sup> [원화] 11년 봄 諸軍이 구름처럼 모였으나 다만 이광안과 懷汝節度 烏重胤만이 관망하지 않고 아침저녁으로 혈전을 벌여 계속 승리를 보고하였다.<sup>66)</sup> 6월 고하우가 적의 공격을 받아 鐵城에서 패해 물러나 新興柵을 지켰다. 당시 諸軍은 승패를 모두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고 허위로 승리를 말하는 것이 많았는데, 고하우가 패하자 中外가 흥흥해졌다. 재상과 諫官이 자주 罷兵을 요청하였으나 배도만은 굳게 賊을 격파하게 하였다.<sup>67)</sup> 얼마 지나지 않아 [7월] 袁滋를 고하우 대신에 唐鄧의 帥로 삼았으나<sup>68)</sup> 원자는 유약하여 능히 군대를 지휘하지 못하였다. [8월] 재상 韋貫之를 吏部侍郎으로 삼

62)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8월 조, 7715~7717쪽(여러 가지 내용 포함).

63)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0년 11월 조, “乙亥, 山南東道節度使嚴綬爲太子少保. 戊寅, 盜焚獻陵寢宮. 詔發振武兵二千, 會義武軍以討王承宗”(454~455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11월 조, “以嚴綬爲太子少保. [호삼성 주: 以討淮西無功也]”(7719쪽).

64)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9월 조, 7717~7718쪽.

65)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1년 정월 조, 455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정월 조, 7721쪽.

66)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4월 조, “庚子, 李光顔·烏重胤奏敗淮西兵於陵雲柵, 斬首三千級”(7722~7723쪽).

67)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6월 조, 7723쪽.

68)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7월 조, 7724쪽.



고 知政事를 파하였다. 위관지가 회서·하북 두 곳의 用兵은 供餉하기에 힘드니 왕승종을 늦추고 오원제 토벌에 전념하기를 청하며 배도와 황제 앞에서 논쟁한 때문이다.<sup>69)</sup> [12월 太子詹事 李愬를 唐隨鄧節도로 삼았다].<sup>70)</sup> [원화] 12년(817) 정월 원자가 다시 좌천되었고 閑廐使 李愬가 表를 올려 군대 앞쪽에서 스스로 공을 세우길 청하자 이에 이소를 당등의 帥로 삼아 원자를 대신하게 하였다. [3월] 이소의 군대가 경계를 압박하여 賊의 文城柵을 함락시키고 柵將 吳秀琳을 생포하고<sup>71)</sup> 또 [6월] 賊將 李祐를 사로잡았으며,<sup>72)</sup> [같은 해 4월] 이광안 역시 賊의 郾城을 함락시켰다.<sup>73)</sup> 오원제가 비로소 두려워하며 左右 및 守城의 병사를 모두 내어 董重質에게 예속시켜 이광안과 오중윤을 막게 하였다.

6월 오원제가 항복을 청하였으나 羣賊에게 제어되어 능히 이를 수 없었다.<sup>74)</sup> 황제는 元凶이 이미 궁지에 빠졌으나 당의 병사들이 賊城에 이르지 못하고 식량 운반이 갈수록 고갈되고 있다고 여기고 延英[殿]에서

69)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1년 8월 조, 457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7월 및 8월 조, 7724쪽.

70)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12월 조, 7728쪽;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1년 12월 조, 458쪽(관명이 자세함).

71)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2년 3월 조, “賊將吳秀琳以文城柵兵三千降李愬”(459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3월 조, “吳秀琳以文城柵降于李愬……”(7732쪽).

72)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5월 조, 7735쪽.

73)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2년 4월 조, “李光顏破賊三萬於郾城, 殺其卒什二三, 獲馬千匹·器甲三萬. …… 以郾城降”(459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4월 조, 7733쪽.

74)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2년 6월 조, “壬戌, 賊吳元濟上表, 請束身歸朝. 時連破三柵, 賊勢迫蹙, 實欲歸朝, 而制於左右, 故不果行”(459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6월 조, “(5월)吳元濟見其下數叛, 兵勢日蹙, 六月, 壬戌, 上表謝罪, 願束身自歸. 上遣中使賜詔, 許以不死, 而爲左右及大將董重質所制, 不得出”(7736쪽).

재상에게 계책을 물으니 배도가 말하길 “賊의 힘이 이미 곤궁해졌지만, 羣帥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능히 항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황제가 말하길 “卿은 결단코 능히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배도가] 말하길 “臣은 맹세컨대 賊과 함께 살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7월 조서를 내려 배도를 彰義軍節度使·兼申光蔡四面行營招撫使에 임명하며 郾城을 임시[行在] 蔡州로 삼고 절도사 치소를 두었다.<sup>75)</sup> 8월 배도가 언성에 이르러 士衆을 격려하니 軍士들이 배도가 온 것을 기뻐하였다. 賞罰을 반드시 행하자 모두 진력하기를 원했으며 매번 나가서 위로할 때마다 軍士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다.

당시 이소는 文城柵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앞서 사로잡은 吳秀琳·李祐를 가히 기용할 수 있음을 알고 의심하지 않고 위임하며 밤낮으로 帳中에서 함께 일을 계획하였다. [원화 12년 9월] 이우가 말하길

오원제의 날쌔던 군대는 대부분 洄曲의 西境을 막고 있고 蔡를 지키는 자는 모두 市人과 노약한 병졸이다. 허를 찔러 엄습하면 능히 곧장 懸瓠에 다다르게 되어 근처의 賊將이 이를 알았을 때는 오원제가 생포된 뒤일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소가 좋다고 여겨 [10월] 배도에게 묻자 배도가 말하길 “군사는 기발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常侍의 생각이 좋다”고 하였다.<sup>76)</sup> 11월(10월?) 이소가 밤에 군사를 내어 李祐에게 날쌔던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선봉이 되고 田進誠에게 3천을 거느리고 後軍이 되게 하고 이소 자신은 3천을 거느리고 中軍이 되었다. 그 달 10일 밤 蔡州城 아래에 이르러 성벽 밑을 파서 모두 성을 넘어갔으나 賊이 알아채지 못하였다. 11일 衙

75)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2년 7월 조, 460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7월 조, 7737쪽.

76)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9월 및 10월 조, 7739~7740쪽.

城을 공격하여 오원제와 그 가족을 생포하여 조정에 보고하였다.<sup>77)</sup>

이전에 오원제가 叛할 때 그 흉폭함에 의지하였으나 군대에 기강이 없었다. 그 장수 趙昌洪·凌朝江·董重質 등은 각각 병사를 통솔하여 외부를 침략하였다. 이사도가 다스리는 鄆州의 鹽이 寧陵·雍丘의 사이[間]를 오갔으나 韓弘이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다. 淮右는 [吳]少誠이 군대를 의지한 이래 30여 년이 되었고 王師가 토벌해도 일찍이 그 성 아래에 이른 적이 없고 또 韓全義를 패주시키고 于頔를 패배시켰기 때문에 교만하고 사납게 굴면서 거리낌이 없었다. 또 城池가 견고하고 택지[陂浸]로 차단[阻廻]되어 있었기 때문 천하의 병사가 둘러싸 3년을 공격해도 함락시킨 것이 1縣에 불과하였다. 高霞寓·李遜·袁滋를 퇴출시키자 諸軍이 비로소 전진하였다. 또 陰山府 沙陀의 驍騎와 邯鄲의 용감한 병졸을 얻고 이광안·오중운이 분발하며 丞相이 직접 통솔하여 諸將이 주저하고 관망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마침내 元惡을 생포하였던 것이다.<sup>78)</sup>

申·蔡는 처음에 사람들이 [李]希烈·[吳]少誠의 虐法에 위협되어 돌아갈 바를 잊었다. 수십 년이 지나자 長者는 노쇠하거나 죽고 壯者는 毒暴에 안주하며 착취[搏噬]에 익숙해졌다. 토지에 말이 적어 널리 노새를 길러 이를 타고 싸우며 騾子軍이라 불렀는데, 매우 용감하고 사나웠다. 또한 갑옷·병장기[甲仗]에는 모두 雷公星文을 그려 주술[厭勝]로 삼았으며, 오소성은 능히 姦謀로 무리의 마음을 굳게 지배하였다. 이전에 한전의가 澗

77)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2년 10월 조, 461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10월 조, 7740~7742쪽.

78) 『구당서』 권157, 李鄴傳, “及王師征淮夷, 鄆寇李師道表裏相援. 鄴發楚·壽等州二萬餘兵, 分壓賊境, 日費甚廣, 未嘗請於有司. 時憲宗以兵興, 國用不足, 命鹽鐵副使程異乘驛諭江淮諸道, 俾助軍用. 鄴以境內富實, 乃大籍府庫, 一年所蓄之外, 咸貢於朝廷. 諸道以鄴爲倡首, 悉索以獻, 自此王師無匱乏之憂”(4148쪽). 이용이 회남절도사로 있었던 시기는 원화 5년(810) 12월부터 원화 12년(817) 10월까지이다.

수에서 패하였을 때 蔡의 병사가 한전의의 帳中에서 公卿 간에 주고받은 서신(問訊書)을 얻자 오소성이 이를 묶어 무리에게 보이며 말하길 “조정 공경이 이 서신으로 한전의에게 부탁하길 蔡州를 점령하는 날 그 將士들의 처와 딸을 婢妾으로 삼게 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하여 그 무리를 격노시켜 귀순할 마음을 차단하였다. 이리하여 蔡 사람들은 늙고 죽을 때까지 천자의 은택을 알지 못하고 단단하게 적에게 이용되었다. 땅은 비록 中州에 있다고 해도 人心은 夷貊보다 지나쳤고 이에 천하의 정예로운 군대(豪銳)를 동원해서도 3년이 지나서 굴복시킬 수 있었다. 오원제는 장수의 재능과 군사력 대비도 없었지만, 아마도 형세가 性習을 핍박하여 教義를 모르게 만든 탓이다.

[원화 12년 11월] 오원제가 경사에 이르자 헌종이 興安門으로 나가 포로를 받으니 百僚가 누각 앞에서 축하하였다. 이어 廟社에 바치고 兩市에서 사람들에게 보인 후 獨柳에서 참수하였는데,<sup>79)</sup> 그때 나이가 35세였다.<sup>80)</sup> 그날 밤 그 머리가 사라졌다. 처 沈氏는 掖庭에 몰입되고 동생 2인과 아들 3인은 江陵에 유배되어 주살되었다. 判官 劉協庶 등 7인이 모두 참수되었다.<sup>81)</sup> 光·蔡 등 州가 평정되면서 비로소 다시 王土가 되었다.<sup>82)</sup>

79) 『자치통감』 권240, 원화 12년 11월 조, 7744~7745쪽.

80) 『신당서』 권214, 오원제전에는 25세라고 보인다.

81) 『구당서』 권15, 헌종본기하, 원화 12년 11월 조, 461쪽.

82) 『자치통감』 권240, 원화 원화 13년 정월 조, “及淮西平, [李]師道憂懼, 不知所爲. …… 師道從之, 遣使奉表, 請使長子入侍, 并獻沂·密·海三州. 上許之. 乙巳, 遣左常侍李遜詣鄆州宣慰”(7747쪽); 同 원화 13년 3월 및 4월 조, “(3월)裴度之在淮西也, 布衣柏耆以策干韓愈曰, ‘吳元濟既就擒, 王承宗破膽矣, 願得奉丞相書往說之, 可不煩兵而服’, 愈白度, 爲書遣之. 承宗懼, 求哀於田弘正, 請以二子爲質, 及獻德·棣二州, 輸租稅, 請官吏. 弘正爲之奏請, …… 上重違弘正意, 乃許之. 夏, 四月, 甲寅朔, 魏博遣使送承宗子知感·知信及德·棣二州圖印至京師”(7748~7749쪽); 同 원화 13년 8월 및 9월 조, “(8월)吳元濟既平, 韓弘懼, 九月,

史臣이 말하길 …… 오소성은 이희열의 난에서 잉태되었고 비록 그 군대를 탈취하여 뒤를 잇게 하였으나 멸망하였다. 오원제는 이희열의 狂悖를 본받고 천지의 존재를 몰랐으니 사람의 兇險이 여기에까지 이르렀다! 王者가 다스리는 이치를 어찌 소홀히 하겠는가.

#### IV. 『신당서』 권214, 오원제전<sup>83)</sup>

오원제는 그 [吳少陽의] 큰 아들이다, 생김새는 머리가 뾰족하고 뺨이 넓으며 턱이 짧고 코 길이가 6寸이었다. 처음에 試協律郎으로 입사하고 攝蔡州刺史가 되었다. 董重質은 [吳少誠의] 사위로 용감하고 사나웠으며 오랫동안 장수가 되어 병사를 잘 지휘하였기 때문에 오원제가 그에게 의지하였다. 그는 오원제에게 유세하여 精兵 3천으로 壽의 間道를 이용하여 揚州를 취하고 동쪽으로 李師道와 약속하여 舟師로 潤州를 습격하여 점거하고 奇兵을 보내 商·鄧을 엄습하여 嚴綬를 잡고 나아가 襄陽을 지켜 東南을 동요시키길 청하고 이렇게 하면 荊·衡·黔·巫는 화살 하나만 보내도 가히 평정할 수 있어 五嶺은 조정 소유가 아닌 것이 된다고 하였다. 또 輕兵 5백으로 峒嶺에서 3일을 가서 東都를 습격하길 청하고 이렇게 하면 천하가 동요하여 가히 橫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오원제는 주저하여 능히 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앞서 그 속관인 蘇兆·楊元卿·侯惟清이 일찍이 오소양에게 입조를 권하였는데, 후자가 거기에는 다른 뜻이 있다고 하니 오원제가 소조를

自將兵擊李師道, 圍曹州”(7752쪽).

83) 『신당서』 권214, 오원제전, 6005~6012쪽.

목 졸라 죽이고 그 시신을 [가족에게] 돌려주고 후유청을 가두었다. 황제는 두 사람이 모두 죽었다고 여기고 후유청을 兵部尙書로 추증하고, 소조를 尙書右僕射로 추증하였다. 당시 양원경은 상주하는 일로 長安에 있다가 재상 李吉甫를 만나 淮西의 상황을 자세히 말하고 또 蔡(즉 회서)의 사신으로 오가는 길에 있는 자는 현지에서 잡아두도록 청하였다. 오소양이 죽은 40일이 되었으나 황제는 輟朝하지 않고 장수를 바꾸고 지키는 병사를 증강하여 변고에 대비하였다.

마침 동증질이 오원제를 살해하고 그 가족을 모두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이길보는 오소성을 위해 輟朝하고 사신을 보내 조문하며 부의를 보내고 상서우복야로 추증하길 청하였다. 하지만 오원제는 명을 받들지 않고 병사를 모두 내어 사방으로 보내 舞陽[縣] 및 葉[縣]을 불태우고 襄城·陽翟을 약탈하였다. 당시 許·汝의 거주민은 모두 덤풀[榛莽] 사이로 도망쳐 숨었으며 약탈된 지역이 천여 리에 미쳤으므로 關東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弔使가 이르렀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갔다. 이에 조서를 내려 烏重胤을 兼汝州刺史로 삼아 군대를 이끌고 그 경계[境]를 압박하고 寧州刺史 曹華를 그 부사로 삼아 襄城을 지키게 하고, 李光顏을 忠武節度使로 삼아 병사를 통솔하여 마주해 주둔하게 하고, 山南東道를 나누고,<sup>84)</sup> 조서를 내려 절도사 嚴綬를 申·光·蔡等州招撫使에 임명하며 中人 崔潭峻에게 그 군대를 감독하게 하였다. 조서를 내려 오원제의 관작을 삭탈하고 諸道에게 나아가 토벌하도록 재촉하였다. 당시 크게 가물었는데, 조서가 내려오자 비와 눈이 무릇 3일 동안 내렸다. 田弘正과 韓弘이 각각 아들을 파견하여 병사를 이끌고 엄수와 이광안의 군대에 예속하게 하였다. 엄수가 蔡의 서쪽 모퉁이[西鄙]에 주둔하고 군대를 내어 조금 승

84)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10월 조, “庚子, 始分山南東道爲兩節度, 以戶部侍郎李遜爲襄·復·郢·均·房節度使, 以右羽林大將軍高震寓爲唐·隨·鄧節度使”(7718쪽).

리하자 대비하지 않아 적의 습격을 받고 磁丘에서 패해 물러나 唐州를 지켰다. 壽州刺史 令狐通이 싸워 자주 패하자 賊이 이에 霍丘를 함락시키고 馬塘을 도륙하였다. 영호통은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며 감히 나가지 못하였다. 左金吾衛大將軍 李文通에게 조서를 내려 宣慰하게 하고 그가 도착하는 것을 짐작하여 영호통을 대신하게 하였다.

마침 배도가 輔政하자 賊이 비로소 두려워하였으나 오원제는 능히 指授하지 못하고 諸將 趙昌·凌朝江·董重質·李祐·李憲·王覽·趙曄·王仁清 등이 편의에 따라 각자 싸우며 王師에 대항하였는데, 오소성·오소양의 옛날 방식[舊風]이었다. 李師道가 소금을 보내면서 寧陵·雍丘 사이를 왕래하였는데, 한홍은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다. 이문통이 병사를 이끌고 賊將 王覽·董重質과 史族岡에서 싸워 왕람의 머리를 베었다. 이광안이 또 賊을 時曲에서 대파하고 또 오중윤과 합세하여 賊을 小澗河에서 공격하여 패배시키고 보루와 참호[屯塹]를 평평하게 하였다. 천자는 엄수가 군율을 어겼다고 질책하고 한홍에게 都統을 겸하게 하고, 高霞寓를 발탁하여 唐鄧隨節度使에 임명하였다.

[원화] 11년(816) 諸軍이 크게 합세하였다. 이광안은 掌河에 보루를 세우고, 이문통은 賊을 固始에서 패배시켜 山을 함락시켰으며, 고하우는 朗山에서 싸워 머리 천 여 급을 벤 뒤 그 성채를 태우고 鐵城에 주둔하였다. 賊이 거짓으로 달아났는데, 고하우가 끝까지 추격하다가 복병을 만나 거의 모두가 死傷되어 물러나 新興을 지키니 賊이 포위하였다. 監軍 李議誠이 말을 달려 唐州로 가서 구원병을 데리고 이르자 포위가 풀렸다. 고하우는 당주로 돌아가 지켰다.

오원제는 고하우를 패배시키자 걱정하지 않고 병사를 합하여 방어하였다. 그 해 가을 이문통이 병사들에게 밤에 입을 닫고 九女原으로 가게 하여 보루 30곳을 부수고 병사들을 나누어 西北과 安陽山에 두고 屯邏 수백 인을 격파하니 항복한 자가 만여 인이고 두 장수를 사로잡았다. 이광

안이 郾城의 병사 2만을 패배시키고 여섯 장수를 포로로 잡고 [원화 11년 9월] 다시 오중윤과 함께 凌雲柵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sup>85)</sup> 황제는 諸軍이 큰 공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노하여 조서를 내려 內常侍 梁守謙에게 가서 宣慰하며 싸움을 독려하게 하고 詔書 5백 통을 주어 유공자를 기다리고 金帛으로 목숨을 걸 병사를 모집하게 하였다. 이광안을 檢校尙書左僕射, 오중윤을 右僕射, [田]布를 御史中丞, [韓]公武를 御史大夫로 승진시켰다. 詔旨를 내려 단속[約束]하며 賞罰을 엄하게 하게 하니 諸將이 두려워하였다. 고후우를 좌천시키고 袁滋를 대신 임명하였으나 원자가 나약하여 능히 군대를 지휘하지 못하자 다시 李愬를 唐鄧隨節度使로 삼았다.

오원제의 식량이 다하자 土쑤은 물풀·물꽃(菱芡)과 魚鼈을 먹었고 이 또한 고갈되자 草根을 캐서 먹기도 하였다. 백성이 굶주림에 고통 받아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오원제 또한 먹을 것을 아끼는 상황에서 그들을 금지시키지 못하자 諸將이 다투어 그들을 받아들였다. 황제는 비로소 郾城·吳房을 行營에 僑置하여 새로 내부하는 자들을 안치하였다. 이소는 병사를 이끌고 그 서쪽을 공격하여 屯柵 10여 곳을 격파하고 丁士良과 吳秀琳을 사로잡았는데, 모두 賊의 날래고 강한 자이다. 賊帥 張伯良이 병사 3만으로 이광안과 郾城에서 싸웠으나 대패하였다. 말 천 필과 무기[甲] 3만 首를 획득하였고 장백량은 蔡로 달아났다. 曹華가 靑陵城을 함락시켜 斷郾으로 가는 퇴로를 차단하였다. 賊將 鄧懷金이 두려워서 바로 귀순하니 이광안이 받아들였다. 이소는 또 朗山을 습격·격파하여 戍將 梁希果를 사로잡고, 汶港 등 세 보루를 제거하였다. 오원제는 군대가 연이어 패

85)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9월 조, “乙酉, 李光顔·烏重胤奏拔吳元濟陵雲柵。丁亥, 光顔又奏拔石·越二柵, 壽州奏敗殷城之衆, 拔六柵”(7725쪽). 이에 앞선 기사로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4월 조, “庚子, 李光顔·烏重胤奏敗淮西兵於陵雲柵, [호삼성 주: 陵雲柵, 在澗水西南, 郾城東北, 蔡人立柵於此, 以陵雲爲名] 斬首三千級”(7722~7723쪽); 同 5월 조, “壬申, 李光顔·烏重胤奏敗淮西兵於陵雲柵, 斬首二千餘級”(7723쪽)라고 보인다.



배하고 또 밖으로 오수림 등을 잃자 表를 올려 항복을 청하였고, 황제는 사신을 보내 죽이지 않겠다고 하였다. 오원제는 行營의 말 3백 필을 취하려 하였으나 동중질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항할 수 없었다. 이소가 興橋를 공략하여 守將 李祐를 얻자 죽이지 않고 帳下로 불러 계획을 논의하면서 비로소 蔡를 습격할 모의를 하게 되었고 賊 세력은 더욱 약해졌다.

오소성이 蔡를 점유한 때로부터 40년 동안 王師는 한번도 성 아래에 이르지 못하였고 또 일찍이 韓全義·于頔를 패배시켰으므로 군대가 교만하여 꺼리는 바가 없고 안으로 산·물[陂澗]에 의해 거둬 차단된 것에 의지하였다. 그러므로 천하의 병사를 합쳐 공격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겨우 1~2縣을 점령하였을 뿐이다. 황제가 고후우·원자를 문책하여 파직시키자 諸將이 이에 사력을 다하였다. 조서를 내려 沙陀의 사납고 용감한 기병에게 당군을 구원하게 하고 배도를 彰義節度·兼申光蔡四面行營招撫使에 임명하였다. 梁守謙이 諸將과 함께 계획하여 배도가 이르기 전에 공을 세우려고 빨리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배도가 이르러 將士를 크게 위로하니 모두 감격해 하며 싸우길 청하였다. 틈을 살피[間] 사람을 蔡로 보내니 오원제가 항복을 약속하였으나 좌우에 겁박되어 항복하지 못하였다. 이광안이 싸울 때마다 가장 뛰어났으므로 오원제는 무리를 모두 時曲에 모아두었다. 이우가 이소를 위해 모책을 내어 말하길 “蔡를 지키는 자는 市人과 노약자들뿐이고, 날랜 병사는 모두 밖에 있다. 만약 곧장 縣瓠를 공격하면 賊을 사로잡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소가 그렇다고 여기고 정예 기병으로 蔡를 야습하여 성벽을 파내고 진입하였는데, 지키는 자가 알아채지 못하였다. 賊은 동중질의 병사가 洞曲에 있는 것을 믿고 군대가 도달할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소가 內城을 공격하자 방어병 천여 인이 여전히 항전하였다. 오원제가 비로소 놀라 갑옷을 입고[被甲] 성에 올라 동중질을 기다렸다. 마침 동중질이 이소에게 항복하였고 李進誠이 賊 창고의 무기를 취해 바로 공격하였다. 다음날 그 문을 불태우자 백성들이 함께

떨나무를 가져와 불을 높였다. 王師가 활을 무더기로 쏘니 성 위에서 화살 축을 가히 주울 수 있었다. 이들이 지나 문이 부서지자 오원제를 사로잡아 가족들과 함께 장안으로 보냈다. 申·光의 戍兵이 아직 3만이었는데, 모두 항복하였다.

황제가 興安門으로 나가 포로를 받으니 군신들이 축하하였다. 오원제를 廟社에 바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인 후 참수하니 나이가 25세였다. 밤에 그 머리가 사라졌다. 妻 沈 씨는 掖庭에 몰입하고 두 동생과 세 아들은 江陵으로 流하여 모두 살해하였다. 그 屬官 劉協庶·趙曄·王仁淸 등 10여 인을 참수하였다. 배도가 돌아올 때 馬揚을 留後로 삼았는데, 곧 이어 절도사로 임명하고 潞州를 나누어 陳許에 예속시켰다.

처음에 배도가 출전할 때 太子右庶子 韓愈가 行軍司馬가 되었는데, 황제가 배도의 공훈을 칭송하기 위해 한유에게 명해 平淮西碑를 짓게 하였다. 그 文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은 唐이 그 德을 닮았다고 여겼다. 성스러운 아들과 신령한 손자가 계속 이어받아 천년 만년 동안 공경하고 경계하여 게으르지 않게 하여 온 세상을 맡기시니 四海·九州가 內外를 가리지 않고 모두 군주로 섬기고 신하가 되었다. 高祖·太宗이 적을 제거하여 천하를 다스렸다. 高宗·中[宗]·睿[宗]은 쉬게 하고 길러 삶을 영위하게 하였다. 玄宗에 이르러 보답을 받고 공을 거두어 매우 창성하고 풍족하며 물자가 많고 땅이 컸는데, 재앙이 그 사이에서 싹틔었다. 肅宗·代宗·德祖·順考는 부지런하면서도 관대하여 큰 악당[大慝]이 제거되었으나 잔당들[菑莠]이 다 뽑히지 않았고 相臣·將臣은 文에 편안해 하고 武를 놀이로 삼으며 [세상일을] 見聞하는 것에 익숙해져 당연하게 여겼다. 睿聖文武皇帝(즉 헌종)가 군신들의 조알을 받고 이에 지도를 살피고 공물을 헤아려서 말하길 “오호라! 하늘이 나의 집안에 모두를 맡겨 지금 나에게까지 전해졌는데, 내가 능히 일을 처리

하지 못하면 어찌 무엇으로 하늘과 선조를 뵈겠는가”라고 하니 군신들이 두려워서 직무를 부지런히 하였다. 다음해 蜀을 평정하고, 또 다음해에 江東을 평정하고, 또 다음해에 澤潞를 평정하니 마침내 易定을 안정시키고 魏·博·貝·衛·瀘·相이 귀순하기에 이르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었다. 皇帝가 말하길 “武만을 궁구할 수 없으니 내가 잠시 쉬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원화] 9년(814) 蔡의 將(즉 吳少陽)이 죽자 蔡人이 그 아들 오원제를 세우고 [계승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마침내 舞陽(縣)을 불태우고 葉(縣)·襄城(縣)을 침범하여 東都를 뒤흔들고 병사를 풀어 사방을 약탈하였다. 황제가 조정에서 두루 자문하자 한 두 신하를 제외하고 모두 말하길 “蔡帥를 조정이 제수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50년인데, 3姓 4將에게 이어지면서 그 뿌리가 견고하고 병기가 날카롭고 병사들이 무지 막지하여 다른 지방과 같지 않다. 이전처럼 어루만져주면 소유하고 따라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大官이 마음으로 결정하여 唱聲하니 모든 사람이 和附하여 한목소리를 내니 견고하여 깨뜨릴 수 없었다. 황제가 말하길 “하늘과 祖宗이 나에게 부여한 임무가 이 일에 있는데, 어찌 감히 힘쓰지 않겠는가. 하물며 한두 신하가 동의하니 도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말하길 ① “이광안아, 너를 陳許의 帥로 삼으니 河東·魏博·郟陽 3軍으로 행군에 있는[在行] 자는 네가 모두 지휘하라”고 하고, ② “오중윤아, 너는 원래 河陽·懷를 관할하였는데, 지금 汝[州]를 더해주시 朔方·義成·陝·益·鳳翔·鄜延·寧慶 7軍으로 행군에 있는 자는 네가 모두 지휘하라”고 하고, ③ “한홍아, 너는 병사 1만 2천 아들 한공무에게 맡겨 가서 토벌하게 하라”고 하고, ④ “이문통아, 너는 壽를 지키고 있는데, 宣武·淮南·宣歙·浙西·徐泗 5軍으로 壽에 행군하는 자는 네가 모두 지휘하라”고 하고, ⑤ “[李]道古야, 너는 鄂岳을 觀察하도록 하라”고 하고, ⑥ “이소야, 너는 唐鄧隨를 帥하도록 하고, 각각 병사를 거느

리고 進戰하도록 하라”라고 하고, ⑦ “배도야, 너는 御史[中丞]을 맡아 가서 군대를 시찰하도록 해라”고 하고, 또 “배도야 오직 네가 나와 뜻이 같으니 너는 재상이 되어 명을 받들고 받들지 않는 자에게 상벌을 내리도록 하라”고 하고, ⑧ “한홍아, 너는 부절을 가지고 諸軍을 都統하라”고 하고, ⑨ “양수겸아, 너는 左右를 출입하니 곧 近臣이다. 가서 군대를 어루만지도록 하라”고 하고, 또 말하길 ㉠ “배도야, 너는 가서 의복과 음식을 군사들에게 주어 춥거나 굶주리지 않게 하고 그 일을 완수하여 蔡人을 살리도록 하라. 너에게 節斧와 通天御帶 및 衛卒 3백을 내린다. 무릇 조정 신하는 네가 선택하여 거느리도록 하니 오직 현명하고 능력있는 자로 하며 大吏라고 해도 꺼리지 말라. 庚申(3일) 내가 門으로 가서 너를 송별하겠다”라고 하고, ㉡ “御史야, 나는 士大夫가 전쟁으로 심히 고통받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니 지금부터 郊廟의 제사가 아니면 樂을 연주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이광안·오중윤·한공무가 함께 그 북쪽을 공격하여 큰 전투를 16차례나 치른 끝에 柵·城·縣 23곳을 얻고 항복시킨 병졸[人卒]이 4만이었다. 이도고가 그 동남을 공격하여 8차례 싸워 1만 3천을 항복시키고 다시 申[州]로 들어가 그 外城을 격파하였다. 이문통은 그 동쪽에서 싸워 10여 차례 맞붙어 1만 3천을 항복시켰다. 이소는 그 서쪽으로 들어가 賊將을 사로잡으면 매번 석방하여 죽이지 않고 그 계책을 써서 싸울 때마다 공을 세웠다. [원화] 12년(817) 8월 丞相 배도가 군영에 이르니 都統 한홍이 더욱 급하게 전투를 독책하였고 이광안·오중윤·한공무가 명에 따라 전투를 벌였다. 오원제는 그 병사를 모두 洄曲에 모아두고 대비하였다. 10월 壬申 이소가 사로잡은 賊將을 이용하여 文城[柵]에서부터 하늘에서 큰 눈이 내리는 틈을 타 120리를 빠르게 달리고 야밤을 이용하여 蔡에 도착하여 그 문을 부수어 오원제를 사로잡아 바치고 그에 속한 人卒을 모두 잡았다. 신사일에 승상 배도가 蔡로 들어가 皇帝의 명으로 그 사람들을 사면하였다.

淮西가 평정되자 크게 잔치를 베풀고 공적에 따라 상을 주었다. 군사가 돌아가는 날 그들의 식량을 蔡 사람들에게 주었다. 무릇 蔡의 卒 3만 5천 중 병사가 되길 원하지 않고 돌아가 농사를 짓겠다는 자가 10의 9였는데, 모두 놓아주었다. 오원제를 京師에서 참수하였다.

공에 따라 관직을 줄 때 한홍에게 侍中을 더해주고, 이소를 左僕射로 삼아 山南東道를 帥하게 하고, 이광안·오중윤은 모두 司空을 더해주고, 한공무는 散騎常侍로서 鄜坊丹延을 帥하게 하고, 이도고는 大夫로 승진 시키고, 이문통에게 散騎常侍를 더해주었으며, 승상 배도가 京師에 조알 하자 晉國公으로 進封하고 金紫光祿大夫로 進階하며 이전과 같이 재상에 있게 하고, 그 부사 [馬]摠을 工部尙書로 삼아 蔡의 일을 맡게 하였다.

배도가 돌아와 상주하니 군신들이 聖功을 기록하여 金石에 새기길 청하였다. 황제가 臣 한유에게 명하였으므로 한유는 再拜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문장을 바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이 天命을 받아 마침내 萬方을 신하로 삼았네. 누가 近土에 살면서 도적질을 계승하여 날뛰겠는가. 지난날 玄宗 시기에 지극히 융성하였다가 무너진 후 河北이 사납고 교만하니 河南이 부회하여 일어났다[附起]. 四聖이 용서하지 않고 누차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였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여 더욱 병사로 수자리를 증강하였다. 지아비는 농사를 지어도 먹을 것이 없고 부녀자는 베를 짜도 입을 옷이 없는데, 수레로 수송하여 병사들을 위해 식량을 하사하였다. 바깥에서 조알하지 않는 자가 많았으나 방치하여 순행[岳狩]하지 않았다. 백관들은 직무를 게을리 하여 일은 옛 법도를 잃어버렸다. 황제께서 이때 제위를 계승하여 돌아보고서 탄식하여 “너희 문무관 중 누가 우리 집안을 근심하는가?”라고 하였다. 蜀을 참수하고 순식간에 山東을 취하였다. 魏將이 먼저 자진하여 六州를 들어 귀순하였다. 淮蔡가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겨 무기를 들고 시끄럽게 떠들며 故常대로 하려고 하였다. 비로소 명을 내

려 토벌하게 하니 마침내 간악한 이웃[姦鄰]과 연계하였고, 음으로 刺客을 파견하여 相臣을 해쳤다. 바야흐로 전세가 불리하여 안으로 京師가 놀라자 여러 公들이 上言하여 “은혜로 따르게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황제는 이를 듣지 않고 신령과 함께 모의하였다. 同德을 재상으로 삼아 天誅를 완수하였다. 이에 조칙을 내려 이광안·오중윤·이소·한공무·이도고·이문통에게 “모두 한홍의 통솔을 받고 각각 너의 공을 세우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 방향으로 나누어 공격하니 그 병사가 5만이었고, 또 大兵이 북쪽에서 진격하니 그 숫자가 두 배였다. 일찍이 時曲을 공격하니 軍士들이 동요하였고[蠢蠢], 凌雲을 점령하니 蔡卒이 크게 곤궁해졌다. 邵陵에서 이기자 郾城이 내항하였다.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겹쳐 주둔한 것이 서로 바라볼 정도였다. 병사들이 지쳐 힘쓰지 못하고 전공을 알리는 것이 제때에 이르지 못하자 황제가 征夫를 불쌍하게 여겨 재상에게 명해 가서 정돈하게 하였다. 병사들이 배불리 먹어 노래 부르고 말은 구유에서 높이 뛰었다. 新城에서 싸우니 賊이 맞붙자 패해 달아났다. [적이] 모든 병사를 뽑아내어 한데 모아 우리를 방어하였지만, [우리의] 서쪽 군대가 뛰어 들어가니 길에 머무는 자가 없었다. 높은 蔡城은 그 강역이 천리였는데, 안으로 들어가 점령하자 귀순하여 명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황제가 은혜로운 말씀을 내리니 재상 배도가 와서 선포하기를 “주살하는 것은 그 수괴에 그치고, 아래 사람들은 모두 석방한다”라고 하였다. 蔡의 卒夫가 무기를 버리고 환호하며 춤추었고 蔡의 婦女는 문에서 맞이하여 웃으며 말하였다. 蔡人이 배고프다고 하자 곡식을 배로 운반하여 먹였고, 蔡人이 춥다고 알리자 비단과 베를 하사하였다. 이전에 蔡人은 금령이 있어 왕래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서로 따르며 놀고 마을 문이 밤에도 열려 있다. 이전에 蔡人은 나아가면 싸워야 하고 물러나면 죽임을 당했으나 지금은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면 좌측에 밥이 있고 우측에 죽이 있다. 그들을 위해 [다스릴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 전란으로 지친 사람을 거두게 하고, 관리를 뽑아 소를 하사하고 교화하며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蔡人이 말하길 “처음에는 미혹되어 알지 못했는

데, 지금에야 크게 깨우쳐 지난 일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또 蔡인이 말하길 “天子는 영명하고 성스러우셔서 순종하지 않으면 일족을 주살하고 순종하면 性命을 보전하게 한다고 하신다.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거든 이 蔡 지방을 살펴보라. 누구든 순종하지 않으면 가서 그 목을 도끼로 벨 것이다. 무릇 叛할 때 술수를 부리고 聲勢로 서로 의지하지만, 우리처럼 강해도 버티지 못하거늘 너희처럼 약한 곳이 버티겠는가? 너희 우두머리와 너의 부친과 너희 형에게 고하건대 분주하게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태평하게 살자”라고 한다. 淮蔡가 난을 일으켜서 천자께서 토벌하였다. 토벌한 후 굶주리자 천자가 살게 해주었다. 처음에 蔡에 대한 토벌을 의논하였을 때 卿士들이 따르지 않았고, 토벌을 시작한 지 4년이 되자 小大 신하가 모두 의구심을 가졌다. 사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은 것은 천자의 영명함 때문이다. 무릇 이 蔡에 대한 공적은 오직 천자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淮蔡를 평정하니 사방[四夷]이 모두 귀순[來]해 오므로 마침내 明堂을 열고 앉아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였다.<sup>86)</sup>

한유의 견해에 의하면 오원제의 토평은 배도가 능히 천자의 뜻을 견고하게 하여 사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諸將이 감히 주저하지 못하고 마침내 생포할 수 있었다고 하여 많은 공을 배도에게 돌리고 이소는 특히 蔡로 진 입한 공이 첫 번째라고 하였다. 이소의 처는 唐安公主의 딸인데, 禁中에 출입하면서 한유의 문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호소하였다. 황제 역시 무신의 마음에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여 조서를 내려 그 비문을 깎아내게 하고 다시 翰林學士 段文昌에게 명해 짓게 하였다.

86) 『韓昌黎文集校注』 권7, 碑誌, 「平淮西碑」, 上海古籍出版社, 474~485쪽; 이중한 역, 『한유산문역주』 4, 소명출판, 2012, 142~165쪽 참조.

李祐는 공으로 神武將軍으로 승진하고 田宅과 米粟을 하사받았다. 황제는 동중질이 오원제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한 것을 따져 주살하려고 하였지만, 이소가 앞서 죽이지 않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春州 司戶參軍으로 좌천시키고<sup>87)</sup> 凌朝江은 潘州 司戶參軍으로 좌천시켰다.

이 해에 申·蔡州가 비로소 貢物을 보내자 戶部는 오랫동안 이르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여 元日에 궁정[廷]에 진열하기를 청하였다.

## V. 『구당서』 권142, 왕승종전<sup>88)</sup>

왕승종은 [王]土眞<sup>89)</sup>의 長子이다. 河朔三鎮은 스스로 副大使를 설치하고 嫡長을 이에 앉혔다. 왕승종은 여러 차례의 상주로 鎮州大都督府右司馬·知州事·御史大夫·充都知兵馬使·副大使에 이르렀다.

[憲宗] 元和 4년(809) 3월 왕사진이卒하자 三軍이 留後로 추대하였

87) 『자치통감』 권239, 원화 12년 12월 조, 7747쪽; 『구당서』 권133, 李愬傳, “憲宗有意復隴右故地, 元和十三年五月, 授愬鳳翔隴右節度使, 仍詔路由闕下. 愬未發, 屬李師道再叛, 詔田弘正·義成·宣武等軍討之, 乃移愬爲徐州刺史·武寧軍節度使, 代其兄愿. 兄弟交換岐·徐二鎮, 旬日間再踐父兄之任. 愬至徐方, 理兵有方略. 時蔡將董重質貶春州司戶, 愬上表請怨重質賜之, 堪於軍前驅使, 卽詔徵還送武寧軍, 愬乃署爲牙將. 愬破賊金鄉, 凡十一戰, 擒賊將五十, 俘斬萬計”(3681쪽).

88) 『신당서』 권142, 왕승종전, 3878~3883쪽.

89) 『구당서』 권142, 왕사진전, “[成德節度使王]武俊長子. …… 及武俊倒戈, 土眞等數人擒[李]惟岳出衙, 縊殺之. 武俊領節鉞, 以土眞爲副大使. 建中年, 武俊僭稱趙王於魏縣, 以土眞爲司空·眞定府留守·充元帥. 及武俊破朱滔順命, 以武俊兼幽州盧龍軍節度使, 仍以土眞爲副使·檢校工部尚書. 德宗還京, 進位檢校工部尚書·充德州刺史·德棣觀察使·封清河郡王. …… 得位之後, 恬然守善, 雖自補屬吏, 賦不上供, 然歲貢貨財, 名爲進奉者, 亦數十萬, 比幽·魏二鎮, 最爲承順”(3876~3877쪽).



는데,<sup>90)</sup> 조정은 그 변고[變]를 엿보며 몇 달 동안 묻지 않았다.<sup>91)</sup> [7월] 왕승종은 두려워서 누차 表를 올려 사죄하였다.<sup>92)</sup> 8월에 이르러 황제가 京兆少尹 裴武에게 명해 가서 宣諭하게 하자 왕승종이 공손하게 조서를 받들며 말하길

三軍에게 핍박되어 朝旨를 기다리지 못하였다. 지금 德·棣 2州를 나누어 바쳐 저의 충성을 보일 수 있길 청한다.

라고 하였다.<sup>93)</sup> 이로 인해 [9월] 起復시켜 雲麾將軍·左金吾衛大將軍 同正·檢校工部尚書·鎮州大都督府長史·御史大夫·成德軍節度·鎮冀深趙等州觀察等使로 삼고, 또 德州刺史 薛昌朝를 檢校右散騎常侍·德州刺史·御史大夫·充保信軍節度·德棣觀察等使로 삼았다. 설창조는 故昭義節度使 [薛]嵩의 아들로 王氏와 婚姻하고 成德軍에 入仕하였기 때문에 자사가 되었다. 왕승종이 2주를 바치자 조정은 별도로 將帥를 파견하지 않고 잠시 그 親將을 제수하였던 것이다. 保信의 旌節이 아직 덕주에 이르지 않았을 때 왕승종이 기병 수백을 덕주로 달려 보내 설창조를 잡아 眞定<sup>94)</sup>으로 데려가서 가두었다. 조정은 또 棣州刺史 田渙을 充本州團

90) 『자치통감』 권237, 원화 4년 3월 조, “成德節度使王士眞薨, 其子副大使承宗自爲留後. 河北三鎮, 相承各置副大使, 以嫡長爲之, 父沒則代領軍務”(7657쪽).

91) 『자치통감』 권237, 원화 4년 4월 조, “上欲革河北諸鎮世襲之弊, 乘王士眞死, 欲自朝廷除人, 不從則興師討之. 裴垕曰, ‘李納跋扈不恭, [호삼성 주; 李納之罪, 以興元赦令, 遂蒙含貸] 王武俊有功於國, [호삼성 주; 謂與李抱眞破朱滔也], 陛下前許師道, 今奪承宗, 沮勸違理, 彼必不服’. 由是議久不決. 上以問諸學士, 李絳等對曰, …… 宗正少卿李拭奏稱, 承宗不可不討, …… 昭義節度使盧從史遭父喪, 朝廷久未起復, 從史懼, 因承瓘說上, 請發本軍討承宗. 壬辰, 起復從史左金吾大將軍, 餘如故”(7659~7660쪽).

92)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7월 조, 7663~7664쪽.

93)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8월 조, 7664~7665쪽.

練·守捉使로 삼아 점차 이간시키려고 하였다. 中使 景忠信을 보내 깨우치게 하고 설창조를 번진으로 돌려보내게 하였으나 왕승종이 조서를 받들지 않았다.<sup>95)</sup> [10월] 헌종이 노하여 조서를 내려 말하길

왕승종은 앞서 복상기간에 몰래 戎鎭을 엿보았는데, 内外가 모두 군주를 섬기는 예법에 의거하여 逆하면 반드시 주살하고 分土의 의례에 의거하여 멋대로 하면 죄를 준다. 짐은 그 선조가 일찍이 茂勳을 세운 것을 생각하여 私恩을 베풀어 公議를 늘렸다. 使臣을 보내 여러 차례 깨우치게 하니 孽童이 없으려 정성을 바치며 2주를 바치길 청해 두 마음이 없음을 기약하였다. 짐이 그것을 받아들여 온전하게 하고자 舊疆의 節制를 제수하고 勳賢을 기억하여 列位를 내렸다. 하물며 德·棣는 본래 成德의 관할이 아니고 설창조는 또 왕승종의 가까운 친척이어서 近鄰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두터운 은혜로 밖으로는 비록 두 번진이라고 해도 실제는 한 집안이다. 왕승종은 공손한 척 해도 간사한 마음을 품고 복종하는 듯해도 화근을 길러 지위를 얻은 후 裴武를 업신여기고 명을 받는 중에 설창조를 구금하였다. 승냥이와 이리의 마음으로 배를 채운 후 다시 도발하고 올빼미와 맹수[梟獍]의 심성으로 길러진 후 더욱 흉악해진다. 더구나 表疏 안에 언사가 어그러지고 오만한 것이 매우 심하다. 亂略을 막아 형벌이 없기를 기약하기 위해 삼가 天誅를 행해 제도[制]가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왕승종이 가진 官爵을 삭탈한다.<sup>96)</sup>

94) 『신당서』 권39, 지리지3, 河北道, 鎭州·常山郡 조, “縣十一, 眞定·棗城·石邑……”(1014~1015쪽).

95)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4년 9월 조, 426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9월 조, 7665~7666쪽.

96) 『당대조령집』 권119, 討伐上, 「削奪王承宗官爵詔」, 630쪽.

97) 『구당서』 권14, 헌종본기상, 원화 4년 10월 癸未 조, 428~429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10월 계미 조, 7666~7667쪽.

라고 하고, 조서를 내려 左神策護軍中尉 吐突承璀를 左右神策·河中·河陽·浙西·宣歙等道赴鎮州行營兵馬招討處置等使에 임명하여 諸道の 군대와 함께 進討하게 하였다.<sup>97)</sup> 神策兵馬使 趙萬敵은 王武俊의 騎將으로 날래고 사나운 것으로 燕·趙에 알려졌는데, 進討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갖추어 말하였다. 이에 토돌승최가 兵柄을 얻자 조만적과 함께 출정하였다. 하지만 토돌승최가 行營에 이르렀으나 威令이 떨치지 못하고 禁軍이 누차 패배하였다. 都將 酈定進은 앞서 劉闢을 사로잡는 데 공이 있어 驍將이라고 불렸으나 賊에게 사로잡혔다. 다만 范陽節度使 劉濟와 易定節度使 張茂昭가 힘써 충성을 바쳐 賊과 싸워 누차 이겼다. 昭義節度使 盧從史는 태도가 자주 바뀌어 제어하기 어렵고 음으로 賊에 부회하였는데,<sup>98)</sup> [원화 5년(810) 4월] 헌종이 몰래 토돌승최에게 조서를 내려 사로잡게 하니 잡아 京師로 보냈다.<sup>99)</sup>

[원화] 5년 7월 왕승중이 巡官 崔遂를 보내 表 3封을 올려 스스로 자수하기를 청하며 허물을 노종사에게 돌렸는데, 그 대략을 보면

신은 앞서 복상 중에 時序를 거칠 때 공손히 朝旨를 지키고 감히 위반하지 않았다. 또 조서를 받들어 州郡을 바치게 하였으나 三軍의 위세에 꺾박받아 孤臣의 마음을 따르지 못했다. 지금 天兵이 사방에서 다가오고 王命이 오랫동안

98) 『자치통감』 권237, 원화 2년 11월 조, “昭義節度使盧從史, 內與王士眞·劉濟潛通, 而外獻策請圖山東, 擅引兵東出, 上召令還, ……”(7644쪽).

99) 『구당서』 권148, 裴垍傳, “王士真死, 其子承宗以河北故事請代父爲帥. 憲宗意速於太平, 且頻濫寇孽, 謂其地可取. 吐突承璀恃恩, 謀撓垍權, 遂伺君意, 請自征討. 盧從史陰苞逆節, 內與承宗相結約, 而外請興師, 以圖厚利. 垍一一陳其不可, 且言, ‘武俊有大功於朝, 前授李師道而後奪承宗, 是賞罰不一, 無以沮勸天下’. 逗留半歲, 憲宗不決, 承璀之策竟行. 及師臨賊境, 從史果攜貳, 承璀數督戰, 從史益驕倨反覆, 官軍病之. 時王師久暴露無功, 上意亦怠. …… 憲宗初愕然, 熟思其計, 方許之. …… 後承璀竟擒從史, 平上黨, 其年秋班師. …… 遂罷承璀兵柄”(3991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3월 조, 7675~7676쪽.

안 단절되어 시퍼런 칼날 아래 國刑을 피하기 어려우며 깊은 근심 속에 도리어 계속 사이가 벌어지고 있다. 그런 중 盧從史가 먼저 난의 실마리를 만들어 천하의 군대를 일으키고 海内の 난을 만들게 하였으니 나라에 불충하고 또 집안에 불효이다. 그는 아비의 喪 소식을 듣고 신하의 절개를 바꾸어 天使를 헐박하고 조정의 기강을 어지럽혔다. 그리고 臣의 居喪을 요행으로 여겨 臣에게 해를 가해 이익을 구하니 위로 감히 聖主를 기망하고 아래로 사망한 부친[親]을 돌아보지 않고 封章 안에 거짓 마음과 가식의 모습을 드러내고 가슴 속에 邪妄을 길렀다. 지금 禍를 꾸민 자는 이미 생포되었으니 원한을 품을 자는 실로 辯明을 갈망한다. 하물며 신의 군대는 평소 忠義를 지켰으나 노종사의 君臣을 이간하는 간계에 걸려 轅門에서 통곡하고 은혜 밖에 격리된 것을 애통해 한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천지의 德으로 용서해 주시고 好生の 仁으로 自新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 陽和에 순응하여 혜택을 펼치고 雷雨를 이어받아 은혜를 미치게 하여 祖父의 이전 공로를 追念하고 臣子の 정성을 살펴 특별히 湯의 형벌을 풀어주고 堯 세상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한다. 당시 조정은 토돌승최의 군대가 장기간 공을 세우지 못하여 國威가 갈수록 손상되어 자못 우려하였다. 마침 왕승종의 사신이 이르자 재상이 상의하여 사면하기를 청하였고 이에 6郡을 모두 주었다.<sup>100)</sup> [같은 달(7월) 幽州節度使 劉濟에게 中書丞을 더해주었다. …… 次子 (劉)總이 독을 타서 (유제에게) 올렸다. 유제가 흥거하였다.<sup>101)</sup> [11월] 왕승종이 설창조를 보내 입조시키니 右武衛將軍에 제수하였다.<sup>102)</sup> 왕승종은 國家

100) 『구당서』 권14, 현종본기상, 원화 5년 7월 조, 431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5년 7월 조, 7677~7678쪽.

101)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7월 조, 7678쪽.

102) 『구당서』 권14, 현종본기상, 원화 5년 11월 조, “以前保信軍節度使·德州刺史薛昌朝爲右武衛將軍, 前爲王承宗虜之, 囚於鎮州, 至是歸朝故也”(433쪽).

가 군대를 동원해도 이기지 못하고 노종사를 모함한 姦計가 행해지자 비록 章表을 올려 謙恭하였으나 마음에 꺼리는 바가 없었다. [원화 7년(812) 10월 魏博節度使 田興(즉 田弘正)이 6주를 들어 有司에 귀순하였다.<sup>103)</sup> [11월 鄆·蔡·恆이 遊客을 보내 백방으로 間說하였지만, 전흥은 끝내 듣지 않았다.<sup>104)</sup>

[원화] 10년(815) [정월] 王師가 吳元濟를 토벌하자<sup>105)</sup> 왕승종과 李師道가 계속 章表를 올려 오원제를 사면하길 청하였다. [5월] 그 牙將 尹少卿이 일을 상주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오원제를 위해 유세하였다. 윤소경이 中書에 이르러 재상을 배견하여 열거하며 논하면서 말투가 불손하였기 때문에 武元衡이 화가 나서 꾸짖어 보내니 왕승종은 더욱 不順하였다.<sup>106)</sup> 이로부터 이사도와 함께 온갖 간계를 꾸며 用兵을 저지하였다. 4월 도적을 보내 河陰倉을 불태웠다.<sup>107)</sup> 6월 도적(盜)을 보내 靖安里에 숨겨두었다가 재상 무원형을 살해하니 京師가 놀라 두려워하였고 10일 동안 대대적으로 수색하고<sup>108)</sup> 천자가 그 때문에 바빠서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7월] 갑술 조서를 내려 왕승종의 죄악을 말하고 그 朝貢을 끊으며 말하길 “그 돌이켜 잘못을 고치고 束身하여 스스로 귀순하길 바란다. 攻討하는 기일은 다시 後命을 기다려라”라고 하였다.<sup>109)</sup> 이때 왕승

103) 『신당서』 권7, 현종본기, 원화 7년 8월 및 10월 조, 212쪽.

104) 『자치통감』 권239, 원화 7년 11월 조, 7697쪽.

105)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0년 정월 조, 452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정월 조, “制削元濟, 命宣武等十六道進軍討之”(7707쪽).

106)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5월 조, 7713쪽.

107)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0년 4월 辛亥(10일) 조, 452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4월 조, 7711~7712쪽.

108)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0년 6월 조, 453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6월 조, 7713~7714쪽.

109) 『당대조명집』 권119, 討伐上, 「王承宗絕朝貢敕」, 630~631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7월 조, 7715쪽.

종과 이사도의 도적이 각지에서 소란을 일으켜 [11월 을해(8일)] 襄州의 佛寺를 불태우고, [원화 11년(816) 정월 갑신(18일)] 建陵의 門戟을 자르고,<sup>110)</sup> [원화 10년 11월 무인(11일)] 獻陵의 寢宮을 불태우고,<sup>111)</sup> 또 낙양에 무기를 숨겨두고 도륙하려고 하였다. [원화 11년 정월 계미(17일)] 현종이 진노하여 전흥정에게 명해 군대를 거느리고 그 경계에 임하고 아울러 鄰道의 6절도사 군대와 함께 토벌하게 하였다.<sup>112)</sup> 당시 바야흐로 淮西에 군대를 일으켜 國用이 고갈되었고, [8월] 河北 諸軍은 대부분 관망하며 나아가지 않았다. 홀로 昭義節度使 郗士美가 精兵을 이끌고 賊壘를 압박하며 허점을 틈 타 취하려 하였는데, 군세가 매우 성대하여 왕승종이 두려워서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sup>113)</sup> 얼마 지나지 않아 [원화 12년(817) 4월] 조서를 내려 임시로[權] 河北의 用兵을 그만두고 회서에 힘을 모았다.<sup>114)</sup>

[원화] 12년 10월 오원제가 주살되자<sup>115)</sup> 왕승종이 비로소 두려워서 전흥정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원화] 13년(818) 3월 전흥정이 사람을 파견하여 왕승종의 아들 [王]知感·[王]知信 및 그 牙將 石汎 등을 궁궐로 보내며 명을 청하자 [황제가] 客舍에 安置하게 하였다. 또 德·棣 2주의 圖印을 바치고 아울러 관내의 租稅를 보내고 官吏를 除補해 주길 청하였다.

110)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1년 정월 甲申 조, 455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정월 조, 7721쪽.

111) 『자치통감』 권239, 원화 10년 11월 戊寅 조, 7719쪽.

112)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1년 정월 癸未 조, 455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정월 癸未 조, “制削王承宗官爵, 命河東·幽州·義武·棋海·魏專·昭義六道進討”(7721쪽).

113)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8월 조, 7724쪽. 이에 앞선 同 같은 해 2월 조, “昭義節度使郗士美奏破成德兵, 斬首千餘級”(7721쪽)이라는 것도 보인다.

114)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2년 4월 조, “詔權罷河北行營, 專討淮蔡”(459쪽).

115) 오원제는 10월 장안에 압송되어 11월에 주살되었다.

황제는 전홍정의 表疏가 계속 이어지자 그 뜻을 어기기 어려웠으므로<sup>116)</sup> 이에 [4월] 조서를 내려 말하길

황제는 하늘에 순응하여 사람을 양육하고 아래로 萬國에 임한다. 하늘이 덮고 땅이 받치는 원리를 보고 항상 그 온전함에 힘쓰고 德과 刑을 병용하여 어루만지면서도 매번 먼저 관대하게 대하였다. 叛하면 반드시 토벌하고 복종하면 용서하며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또한 그 道를 숭상하였다. 짐은 앞선 가르침을 존중하고 대업을 계승하여 사방을 평정하고 요사한 기운을 씻었다. 위로는 祖宗의 宿憤을 펴고 아래로는 黎庶의 편안함을 이루었으며, 백성의 생활을 깊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상을 없애려고 하였다. 거친 것을 감싸고 간사한 것을 용인하는 경우에는 法을 굽혀 은혜를 베풀고 진실로 정성을 다해 가히 공훈할 때는 과오를 용서하며 대소를 따지지 않는다.

왕승중은 앞서 복상 중에 이웃 번진[鄰封]에게 속아 뒤에 藩城을 관할하면서 朝野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나의 은혜가 비록 두텁다고 해도 법률[時憲]은 용납하지 않는다. 근심은 실로 스스로 배양하는 것이고 총애는 내가 단절한 것이 아니다. 백관 공경은 조정에서 분분히 건의하고 사방 諸侯는 빈번히 상주하여 다투어 토벌하기를 청하고 다투어 먼저 출병하였다. 그럼에도 다시 招懷를 널리 보이고 容納하는 것에 힘쓰는데,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어찌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겠는가. 진군하면 서로 살상하는 것이 불쌍하고 물러나면 그 군대에 협박받은 것이 된다. 도탄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만 능히 슬퍼하고 한탄하는 것이 없겠는가. 그 선조 왕무준은 王室에 공로가 있어 甲술에 기록되고 景鐘에 새겨졌다. 비록 다시 王師를 일으키고 다시 인심에 따른다고 해도 10대를 사면하는 것이 항상 짐의 마음에 있다.

116)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3월 조, 7748~7749쪽. 또 『신당서』 권7, 헌종본기, 원화 13년 3월 조에는 “己酉, 橫海軍節度使程權以滄·景二州歸于有司, 權朝于京師”(217쪽)라고 하는 기사가 보인다.

근래에 조정 안팎이 경축하고 팔방에 은택이 펼쳐지니 이 큰 은혜를 널리 행하여 스스로 自新하게 하였다. 왕승중이 과연 깊이 잘못을 뉘우쳐 충성을 나타내어 두 아들을 멀리 보내고 表章을 올리며 圖印을 봉인해 上聞하여 德·棣의 名部를 바치고, 곳간을 열어 곡식을 보내고 아울러 소금생산을 함께 하여[并竈] 소금을 상공하고, 토지는 職方의 지휘를 받길 원하고 재물은 관련 관사[司會]에 귀속되기를 청하였다. 하물며 천자가 임하는 지역은 王土가 아닌 곳이 없는데, 그 옛 땅[舊服]을 나누어 너의 정성을 표시하니 진실로 效順의 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것이 충성의 뜻을 바치는 것인데 억누르기만 하고 어루만지지 않는다면 어찌 관대한 마음을 보일 수 있겠는가. 짐이 이 점을 생각하건대 모두 같은 赤子이거늘 한 사람이라도 편안하지 않는다면 자나서나 편안하지 못하니 어찌 樂土의 사람들을 몰아 들판에서 도륙되게 두겠는가! 이미 暴亂을 제거하였으니 항상 전쟁을 그만둘 것을 생각하는데, 이 마음은 하늘과 땅이 지켜볼 것이다. 하물며 常山(즉 성덕)의 군대는 예전에 공로가 있고 잘못을 고쳐 회개하려고 하고 은혜를 갚고 착하게 될 것을 맹서하므로 정성의 지극함을 보고 조정의 은혜를 다시 펼치려 한다. 너의 허물을 씻어주는데, 이는 짐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다. 특별한 은혜를 내리니 마땅히 영원토록 보답하도록 하라. 왕승중을 이진과 같이 銀青光祿大夫·檢校吏部尙書·鎭州大都督府長史·御史大夫·充成德軍節度·鎭冀深趙觀察等使로 삼는다.

라고 하였다. 또한 右丞 崔從에게 명해 鎭州로 가서 宣慰하게 하였다. 왕승중은 素服으로 명을 기다렸다. 이에 華州刺史 鄭權을 德州刺史·充橫海軍節度·德棣滄景觀察等使에 임명하였다.<sup>117)</sup> 이듬해(819) 金紫光祿大夫·檢校尙書左僕射를 더해주었다. 이 해(원화 14년 2월)에 李師道가

117)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3년 4월 庚辰(27일) 조, 463쪽; 『신당서』 권7, 현종본기, 원화 13년 4월 甲寅 및 庚辰 조, 317쪽; 『자치통감』 권240, 원화 13년 4월 庚戌(庚辰?) 조, 7749~7750쪽(간략함. 이사도의 대응 상황이 자세히 서술됨).



평정되자<sup>118)</sup> 왕승종이 法을 받드는 것을 더욱 조심하고 當管 4州의 매 주에 錄事參軍 1員, 判司 3員, 매 縣에 丞 1員, 主簿 1員을 두고 吏의 補授는 모두 朝旨를 듣도록 청하였다. [穆宗 원화] 15년(820) 11월 卅하 자<sup>119)</sup> 侍中으로 추증하였다. 아들 왕지감·왕지신은 조정에서 관직을 받았다[在朝].

[王]承元<sup>120)</sup>은 왕사진의 둘째 아들이다. 형 왕승종이 節鉞을 받자 상주하여 왕승원을 觀察支使·朝議郎·左金吾衛胄曹參軍·兼監察御史로 삼았는데, 나이가 16세였다. 왕승종에게 2천 기병으로 王師가 李師道를 토벌하는 것을 돕게 하였으나 왕승종이 그 말을 채용하지 않았다.

[목종] 원화 15년 겨울(10월) 왕승종이 졸하자 비밀에 부치며 發喪하지 않고 大將이 硯 郡(즉 屬州)에서 變수를 取하려고 모의하였다. 그때 參謀 崔燧가 몰래 병권을 가진 자와 모의하여 祖母 涼國夫人의 이름으로 親兵과 諸將에게 알려 왕승원을 세우게 하였다. 왕승원은 절하고 울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諸將이 청하며 그만두지 않았다. 왕승원이 말하길 “천자가 中貴人을 보내 監軍할 것이다. 일이 있으면 먼저 그와 함께 의논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監軍이 이르자 그에 따라 諸將이 이에 따랐다. 왕승원이 제장에게 말하길 “諸公은 先德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왕승원의 나이가 어리지만 변진 일을 맡게 하였다. 왕승원은 나라에 충성을 다해 先志를 받들고자 하는데, 諸公은 능히 따르겠는가?”라고 하자 제장이 허락하였다. 마침내 衛門都將이 근무하는 곳에서 일을 처리하며 좌우

118)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4년 2월 조, 466쪽; 『자치통감』 권231, 원화 14년 2월 조, 7764쪽.

119) 실제로 사망한 것은 10월이고 11월에 죽었다고 상주되었다.

120) 『구당서』 권142, 왕승원전, 3883~3884쪽. 왕승원이 牙將 李寂 등을 참수하였다는 내용에서 쪽수가 바뀐다.

사람에게 留後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일이건 대소를 막론하고 參佐와 함께 결정하였다.<sup>121)</sup> 몰래 疏를 올려 번수를 청하자 천자가 가상하게 여겨 銀青光祿大夫·檢校工部尚書·兼滑州刺史·義成軍節度·鄭滑觀察等使에 임명하였다.<sup>122)</sup> [11월] 인접한 鎭이 兩河의 近事로 그를 설득하였으나 왕승원이 듣지 않았고 諸將 역시 후회하였다. 起居舍人 柏耆가 조서를 가지고 滑州의 命을 宣諭하니 어떤 병사는 절하고 어떤 병사는 울었다. 왕승원이 백기와 함께 館驛에서 諸將을 불러 타이르자[諭] 제장이 통곡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왕승원이 꾸짖어 말하길

諸公은 先世의 연고로 왕승원이 이곳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데, 마음이 심히 크고 두텁다[隆厚]. 하지만 조서를 받드는 것이 늦어지면 그 죄가 크다. 이전에 李師道가 아직 패하지 않았을 때 그 죄를 사면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그때 이사도가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諸將이 제지하였고, 다른 날 이사도를 살해한 것도 또한 諸將이었다. 지금 공들이 이사도의 일을 하지 않길 바라며 감히 拜請한다.

라고 하고 마침내 諸將에게 절하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며 억제하지 못하였다. 왕승원이 이에 家財를 모두 내어 사람 숫자에 따라 나누어 주고 그 일한 바를 헤아려 발탁하였다. 牙將 李寂 등 수십 인이 강하게 왕승원을 만류하였는데, 이적 등을 참수하자 軍中이 비로소 안정되었다. 왕승원이 鎭州를 나갈 때 나이가 18세였다. 수종하는 將吏 가운데 器用과 貨幣를

121) 『구당서』 권16, 목종본기, 원화 15년 10월 조, 481~482쪽; 『자치통감』 권241, 원화 15년 10월 조, 7782쪽.

122) 『자치통감』 권241, 원화 15년 10월 조, “成德軍始奏王承宗薨. 乙酉, 徒田弘正爲成德節度使, 以王承元爲義成節度使, 劉悟爲昭義節度, 李愬爲魏博節度使. 又以左金吾將軍田布爲河陽節度使”(7785쪽).

가지고 가는 자가 있었는데, 왕승원이 명해 모두 남겨두게 하였다.<sup>123)</sup> 왕승원의 형제와 사촌형제로 郡守(즉 자사)에 제수된 자가 4인, 입조하여 관직에 오른[登朝] 자가 4인이었으며, 從事와 將校 가운데 공로가 있는 자도 모두 擢用되었다. 조모 양국부인이 입조하자 穆宗이 內宮에서 연회를 베풀어주고 하사품을 내린 것이 매우 많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목종 長慶 원년(821) 7월] 王廷湊가 전홍정을 살해하고 鎮州를 점거하여 叛하였다.<sup>124)</sup> 鄜坊丹延節度使로 移鎮하였는데, 便道로 입조를 청하자 목종이 훌륭하게 여기고 자주 불러 자문을 구하였다. 얼마 후 鳳翔節度使로 바뀌었다. 봉상의 서북은 涇原과 인접하였는데, 山谷의 험함이 없어 吐蕃이 이로 인해 곧바로 入寇하였기 때문에 왕승원이 요충지에 보루를 쌓고 병사 1천 인을 나누어 지키게 하자 [황제가] 臨沂城이라는 이름을 내렸다. 조서를 내려 岐國公을 잇게 하고 檢校左僕射로 승진시켰다. 봉상성 동쪽은 商旅가 모이는 곳으로 거주민이 봉화로 놀라는 경우가 많았는데, 왕승원이 상주하여 성을 증축해 둘러싸게 하였다. 鎮에 있는 지 10년이 지나자 檢校司空·御史大夫가 더해지고 平盧軍節度·淄青登萊觀察等使로 옮겨 제수되었다. 당시 均輸鹽法은 아직 兩河에 행해지지 않았는데, 왕승원이 먼저 연법을 청해 有司에 귀속시켰다. 이로부터 兗鄆 諸鎮은 모두 군수의 법을 받들었다.

왕승원은 관대하고 은혜로우면서도 절제가 있었고 잘 다스렸다고 칭해졌다. [文宗] 大和 7년(833) 12월 평로에서 졸하였다. 나이가 33세였고 司徒로 冊贈되었다.

123) 『자치통감』 권241, 원화 15년 11월 조, 7785쪽.

124) 『자치통감』 권241, 장경 원년 7월 조, “及魏兵去, 壬戌夜, [王]庭湊結牙兵諫於府署, 殺弘正及僚佐·元從將吏并家屬三百餘人. 廷湊自稱留後, 逼監軍宋惟澄奏求節鉞”(7796~7797쪽).

## VI.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sup>125)</sup>

[헌종 원화 4년(809) (왕사진이) 죽자 司徒로 추증하고 시호를 景襄이라고 하였다. 軍中에서 그 아들 왕승종을 留後로 추대하였다].<sup>126)</sup>

이전에 河北三鎮은 스스로 副大使를 설치하고 항상 嫡長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왕승종이 어사대부로서 그것을 맡았다. 유후의 일을 총괄하게 되었으나 헌종이 오랫동안 답하지 않고 그 변고[變]를 엿보았다. 왕승종이 자주 上疏하여 스스로를 변명하였다. [원화 4년 7월] 황제는 [幽州節度使] 劉濟와 [魏博節度使] 田季安이 모두 큰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절도사를 교체할 것을 의논하였다. 그러자 翰林學士 李絳이 말하길

鎮州는 대대로 계승하여 사람들이 익숙하므로 단지 거명할 경우에 특별히 십시오. 또 諸道에 賞[賜]하여 100만 군사를 길렀으나 또 燕·魏·淄靑은 勢가 같아 필히 연합할 것이다. 바야흐로 江·淮가 홍수로 인해 재력이 부족하니 마땅히 즉시 왕승종에게 조서를 내려 계승하게 하시오. 전계안 등은 비록 병에 걸렸다고 해도 서서히 도모하는 것이 좋다. 四方을 평정하는 데에는 天時가 있으니 서둘러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황제가 그렇다고 여겨 鎮을 나누어 절도사를 分建하고 왕승종에게 매년 賦를 바치게 하기를 李師道와 같게 하려고 하였다. 이강이 말하길 “가령 왕승종이 조서를 받들어 도 諸道가 땅을 쪼갠 것에 대해 함께 원망할 것이니 관작을 헛되게 주는 것이어서 마땅하지 않다. 사신을 보

125) 『신당서』 권211, 왕승종전, 5956~5959쪽.

126) 『신당서』 권211, 왕사진전, 5955~5956쪽.

내 [자진하여 토지를 할양하도록] 깨우치게 하고 황제의 뜻을 어기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sup>127)</sup> 이에 [8월] 황제가 조서를 내려 京兆尹 裴武에게 慰撫하게 하자 왕승종이 조서를 받드는 것이 심히 공손하였고, 德·棣 2주를 바치기를 청하였다.<sup>128)</sup> [9월] 마침내 檢校工部尙書로서 절도사를 승계하게 하고 德州刺史 薛昌朝를 保信軍節度使로 삼아 德·체를 다스리게 하였다.<sup>129)</sup>

설창조는 [薛]嵩의 아들로 왕승종과 본래 姻家 사이였다. 황제가 그것을 이용하여 親將을 이간시키고자 하여 임명한 것이다. 조서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왕승종이 기병을 급히 보내 검탈하여 데리고 가서 가두었다. 조서를 내려 다시 棣州刺史 田渙을 二州團練守捉使로 삼고 中人을 보내 조서를 전해 설창조를 돌려보내게 하였다. 왕승종이 명을 거부하자<sup>130)</sup> [10월] 황제가 노하여 조서를 내려 官爵을 삭탈하고 中人 吐突承璀에게 左右神策을 지휘하고 河中·河陽·浙西·宣歙의 병사를 이끌어 토벌하게 하였다.<sup>131)</sup> 趙萬敵은 옛 [王]武俊의 장수로 전투를 잘해 이름이 알려졌는데, 왕사진 때 입조하여 황제에게 토벌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하였기 때문에 토돌승최와 함께 가게 하였다. 조서를 내려 “왕무준은 忠節이 두드러지니 그 實封을 아들 [王]士則에게 내리고 墳墓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다.

토돌승최가 군대에 이르렀으나 威略이 없어 군세가 떨치지 않았다. 神策大將 龐定進은 驍將으로 칭해지고 劉闢을 사로잡는 데 공을 세워 陽山郡에 王으로 봉해졌는데, 이때에 이르러 싸움에서 패해 말 타고 달아나

127)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7월 조, 7663~7664쪽.

128)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8월 조, 7665~7665쪽.

129)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9월 조, 7665쪽.

130)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9월 조, 7665~7666쪽.

131) 『신당서』 권7, 현종본기, 원화 년 10월 조, 211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4년 10월 조, 7666~7667쪽.

다 넘어지자 趙人이 말하길 “酈王이다”라고 하고 죽이자 군대의 사기가 더욱 꺾였다. 馮少誠이 죽자 이강이 상주하여 “蔡는 사방 이웃에 구해줄 자가 없으므로 공격하여 토벌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왕승종을 사면하고 오로지 淮西에 집중[事]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으나 황제가 듣지 않았다. 昭義節度使 盧從史는 왕승종과 결탁하면서 겉으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함께 어울렸다[與之]. 太常卿 權德輿가 간언하여 말하길

神策兵은 市井의 屠販이어서 戰陣한 적이 없다. 어쩌면 힘들다고 하여 멀리 가는 것을 꺼려 흩어져 盜賊이 될 수 있다. 恆冀는 말이 건장하고 병사가 많기 때문에 공격해도 필시 시간이 오래 걸린다. 西戎이 틈을 이용할 수 있는데, 禁衛는 한시도 비워둘 수 없다. 山東은 작은 환부[疥癬]이지만, 京師는 心腹이므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군대를 동원한 지 반 년이 되었는데, 緡錢 5백 만을 소비하였다. 바야흐로 여름이어서 날씨가 무덥고 홍수가 내리며 병질이 유행할 것이니 진실로 潰槁의 변고가 있을까 우려된다.

라고 하였다. 또 말하길 “山東의 諸侯는 모두 자식을 자신의 副[使]로 삼고 人心이 동떨어져 있지 않은데, 누가 기꺼이 폐하를 위해 힘을 다하겠는가. 또 노종사는 도적을 구원자로 의지하고 토돌승최를 피어 충애를 바라게 한다. 마땅히 行營의 善將이라고 부르며 역을 이용해 빨리 달려오게 하여 중간 쯤 왔을 때 澤潞를 제수하고 노종사를 다른 번진으로 옮겨 그 간사한 의도를 깨트린 연후에 왕승종을 사면하면 衆情이 반드시 복종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황제가 아직 허락하지 않았다.

[원화] 5년(810) 河東軍이 그 둔영 하나를 함락시키고 張茂昭가 木刀溝에서 격파하였다. 황제가 노종사의 간교를 우려하여 마침내 계책을 써서 경사로 縛送하고 劉濟는 또 安平을 함락시켰다. 왕승종이 두려워서 그

예하의 崔遂을 보내 上書하여 사죄하며 말하길 “이전에 토지를 바치려 하였으나 三軍에 핍박되어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고, 또 노종사에게 속아 이익을 쫓았는데, 관리[吏]를 청하고 賦를 바쳐 自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당시 군대가 오랫동안 싸웠으나 공을 세우지 못하고 군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황제가 우려하였다. 또 淄靑과 盧龍이 자주 表를 올려 사면을 청하였다. 이에 조서를 내려 죄를 사면하고 故地를 모두 주며 諸道兵을 철수시켰다. 설창조가 경사로 가자 右武衛將軍에 제수하였다. 왕승종은 군대가 경계를 압박하다가 철수하고 죄를 노종사에게 돌려 추궁받지 않자 스스로 계책이 통했다고 여기고 교만해져 꺼리는 바가 없었다.

[원화] 7년(812) 군수창고에 불이 나서 器鎧가 모두 타버리자 守吏 백여 인을 죽이고 스스로 불안해 하였다. 吳元濟가 反하자 왕승종과 이사도가 上書하여 사면을 청하고 그 장수 尹少卿을 보내 蔡를 위해 유세하게 하였는데, 재상을 배견할 때 언어가 불손하였으므로 武元衡이 노해 꾸짖어 보냈다. 왕승종이 크게 원망하고 이사도와 함께 모의하여 惡少年 수십을 河陰에 잠복시켜 밤을 틈 타 관리[吏]에게 활을 쏘니 관리가 도망쳐 흩어졌고 이에 漕院을 불태웠다. 사람들이 불난 곳으로 달려왔고 죽기를 각오한 자 10여 인이 縣에서 백성을 대거 동원하여 盜를 잡으려 하였으나 도망가 버려 잡지 못하였다. 무릇 손실된 것이 錢 30만 緡과 粟 수만 斛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張晏 등이 재상 무원형을 해쳤으므로 京師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천자는 끼니를 제때 먹지 못하였다. 왕승종이 일찍이 疏를 올려 무원형의 허물을 지적하였으나 궁중에 계류해 두었다. 이때에 이르러 황제가 꺼내 군신들에게 보이며 大議하게 하자 모두가 그 죄를 공포하고 토벌하기를 청하였다. 조서를 내려 왕승종의 朝貢을 끊고 그 동생 [王]承系·[王]承迪·[王]承榮을 먼 곳으로 유배보냈으며 博野·樂壽가 옛 范陽 땅인 점을 근거로 劉總에게 귀속시켰다. 파견한 도적이 곳곳에서 소란을 일으켜 建陵의 門戟을 자르고 獻陵의 寢宮을 불태웠으며 또 洛陽

에 무기를 숨겨 反하러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왕승종이 자주 병사를 내어 鄰鄙를 약탈하자 田弘正이 上言하여 왕승종을 마땅히 주살해야 한다고 하고 황제가 [전홍정에게] 군대를 이끌고 경계를 압박하게 하였다. 왕승종은 詔旨에 따른 군대가 바로 전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껏 滄·景·易·定 사이를 침략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원화] 11년(816) 조서를 내려 爵을 삭탈하고 實封을 [王]士平에게 주어 왕무준의 후사가 되게 하였다. 河東·義武·盧龍·橫海·魏博·昭義 6절도사 병사에게 나아가 토벌하게 하였는데, 대략 수십 만이었고 토지 수천 리를 둘러싸서 그 세력을 분산시키게 하였다. 하지만 營屯이 서로 떨어져 있고 명령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들이 관망하였다. 홀로 昭義의 郗士美가 賊의 경계를 압박하였는데, 賊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 이전에 왕승종이 諸父와 불화하여 모두 京師로 갔다. [王]士則은 神策大將軍으로 있다가 그 叛을 듣고 경조에 본적을 두길 청하였는데, 裴度が 邢州刺史로 기용하길 청해 昭義에 예속시켜 趙人을 초무하게 하였다. 王怡란 자가 있었는데, 왕무준의 從子로 왕승종을 위해 南宮을 지켰다. 왕사칙이 그를 부르자 귀순을 약속하였으나 모의가 누설되어 살해되었다. 아들 [王]元伯이 달아나 경사로 가자 監察御史로 발탁하고 조서를 내려 왕이를 尙書左僕射로 추증하였다.

이듬해(817) 오원제가 평정되자 왕승종이 매우 두려워서 牙將 石汎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魏博에 가게 하여 田弘正을 통해 入侍하길 청하고, 또 德·棣 2주를 바치고 租賦를 보내고 천자가 관리를 임명하길 청하였다. 전홍정이 [王]知感·[王]知信을 궁궐로 보내 명을 청하게 하였다. 그 전에 황제가 尙書右丞 崔從을 보내 詔書를 내려 自新을 허락하였는데, 왕승종은 素服으로 죄를 기다렸다. 이때에 이르러 조서를 내려 관작을 회복시키고, 華州刺史 鄭權을 橫海節度使에 임명하여 德·棣·滄·景 등 주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또 왕승종의 實封 3백 호를 회복시키고 관하 백성이 굶주



리자 帛 1만 필을 하사하였다. 이사도가 평정되자 法을 받드는 것을 더욱 조심하고 表를 올려 관하 州의 錄事參軍·判司와 縣의 主簿·수은 모두 王官을 청하였다.

[목종 원화] 15년(820) [11월] 사망하자 侍中으로 추증하였다. 軍中에서 그 동생 [王]承元을 留後로 추대하였으나 왕승원은 감히 鎮을 세습하려고 하지 않았다. 조서를 내려 義成軍節度使로 삼았는데, 자세한 것은 本傳에 보인다.<sup>132)</sup>

## VII. 『구당서』 권143, 劉惔·劉濟·劉總傳<sup>133)</sup>

유평은 幽州 昌平 사람이다. 부친 [劉]貢은 일찍이 廣邊<sup>134)</sup>·大斗軍使<sup>135)</sup>가 되었다. 유평은 朱滔의 고모 아들로 軍功을 쌓아 雄武軍使<sup>136)</sup>가 되어 屯田을 넓히고 절약하여 일처리를 잘한다고 칭해졌다. 점점 승진

132) 『신당서』 권148, 王承元傳, 4787~4788쪽.

133) 『구당서』 유평전은 3898~3922쪽, 유제전은 3900~3901쪽, 유충전은 3902~3903쪽에 보인다.

134) 『신당서』 권39, 지리지3, 河北道, 媯州·媯川郡 조, “有府二, 曰密雲·白檀. 有清夷軍, 垂拱中置. 有淮北·白陽度·雲治·廣邊四鎮兵. 有橫河·柴城二戍. 有陽門城. 有永定·窯子二關. 又有懷柔軍, 在媯·蔚二州之境. 懷戎隸, …… 又北有廣邊軍”(1021~1022쪽); 『자치통감』 권268, 後梁 均王 乾化 3년(913) 3월 조의 胡三省 注, “媯州懷戎縣北有廣邊軍, 故白雲城也. 宋白曰, ‘廣邊 軍在媯州北一百三十里. 高行周兄弟本貫廣邊軍鵬窠村’”(8769쪽).

135) 『元和郡縣圖志』 권40, 隴右道下, 涼州 조, “大斗軍, 涼州西二百里. 本是赤水軍守捉, 開元十六年改爲大斗軍, 因大斗谷爲名也. 管兵七千五百人, 馬二千四百匹”(中華書局, 1018쪽).

136) 『신당서』 권39, 지리지3, 河北道, 薊州·漁陽郡 조, “又有雄武軍, 故廣漢川也”(1022쪽).

하여 涿州刺史가 되었다. 몇 년 후 주도가 병사를 이끌고 田承嗣를 토벌할 때 상주하여 유평을 領留府事로 삼으니 관대함으로 衆心을 얻었다. 당시 李寶臣이 전승사의 간계에 속아 함께 通謀하였다. 전승사는 또 滄州를 이보신에게 주고 병사를 이끌고 瓦橋關<sup>137)</sup>에서 주도를 위협[劫]하자 주도가 몸만 빼어 도주하였고, 이어 승세를 타고 幽州를 襲取하려고 하였다. 유평이 방략을 세워 鎮撫하자 이보신이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고 공으로 御史中丞이 더해졌다.

이보신이 죽자 아들 [李]惟岳이 朝命을 거부하자 德宗이 주도와 張孝忠에게 명해 힘을 합쳐 토벌하게 하였다. 이유악이 평정되자 주도는 조정이 약속을 어겨 深州를 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여 내심으로 분노가 그치지 않았다. 마침 王武俊 또한 深·趙를 할양하는 것을 원망하여 함께 謀叛하여 田悅을 구하기로 하였다. 유평은 당시 知幽州留後事로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 글을 가지고 가서 주도에게 말하게 하길 “司徒는 지위가 太尉보다 높아 재상에 위치하고 은충이 藩臣 가운데 최고여서 榮遇가 극에 달한다. 지금 昌平故里는 조정이 太尉鄉 司徒里로 바꾸었는데, 이 역시 大夫의 영원한 명예이다. 단지 忠順을 유지하면 일이 모두 무사하다. 가만히 근래의 일을 생각해 보건대 큰 것에 힘써 전쟁을 즐기며 성패를 돌아보지 않고 집안이 망하고 자신이 도륙된 자는 安·史이다. 暴亂은 쉽게 망하니 지금 다시 무엇이 있는가? 유평은 가까운 친척으로 세세로 恩遇를 입었는데,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다만司徒께서 잘 도모하여 후회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주도는 비록 그 말을 채택하지 않았으나 그 盡言을 가상하게 여기고 끝내 의심하지 않았다. 무릇 나가 征伐할 때면 반드시 유평에게 留後事를 맡겼다. 大

137) 『자치통감』 권262, 昭宗 光化 3년(900) 6월 조의 호삼성 주, “瓦橋, 在涿州歸義縣南, 至莫州三十里”(8531쪽).

冀王을 僭稱할 때 유평을 가짜 右僕射·范陽留守로 삼았다. [朱]泚가 京  
 邑을 점거하고 주도를 南河<sup>138)</sup>로 불렀는데, 貝州에 이르러 패배[挫敗]하  
 여 돌아가며 兵甲을 모두 잃었다. 유평은 주도가 장차 이른다는 소식을 듣  
 고 范陽의 兵甲을 모두 모아 길을 사이에 두고 20여 리나 늘어서게 하여  
 주도를 맞이해 府第로 귀환하게 하자 사람들이 모두 유평의 忠義를 가상  
 하게 여겼다.

[덕종] 貞元 원년(785) [6월] 주도가 卒하자 三軍이 유평을 추대하여  
 임시로 軍府事를 어루만지게 하였다.<sup>139)</sup> 무리가 유평을 따르자 마침내  
 그 땅을 영유하였다. 이에 조정이 유평을 幽州大都督府長史·兼御史大  
 夫·幽州盧龍節度副大使·知節度事·管内營田觀察·押奚契丹·經略·  
 盧龍軍使에 제수하였다. 3개월 동안 그 지위에서 있다가 정원 원년 9월에  
 죽하니<sup>140)</sup> 나이가 59세였다. 3일 동안 廢朝하고 兵部尙書로 추증하고  
 布帛을 차등있게 하사하였다. 아들 [劉]濟가 승계하여 유주절도사가 되  
 었다.

[劉]濟는 유평의 장자이다. 이전에 모친이 難産하여 낳았는데, 侍者가  
 유제를 처음 보았을 때 큰 뱀으로 흑색 기운이 일어났으므로 모두 놀라 달  
 아났다. 성장하자 자못 남다른 아이였다. 거처하는 방에 불이 나서 사람들  
 이 모두 놀라 구하였는데, 유제는 조용히 빠져나왔으므로 무리가 다르게  
 여겼다. 本管의 州縣 牧宰를 누차 역임하였다. 유평이 절도사가 되자 유  
 제를 兼御史中丞·充行軍司馬로 삼았다. [덕종 정원 원년(785) 9월] 유평

138) 명확하지는 않지만, 『通典』 권183, 州郡13, 古荊州, “浮於江·沱·潛·漢, 逾於洛  
 至於南河. [原注: 言渡四水而越洛, 乃至南河也. 南河即在冀州南”(中華書局,  
 4863쪽) 등이 보인다.

139) 『자치통감』 권232, 정원 원년 6월 조, 7453쪽.

140) 『구당서』 권12, 덕종본기상, 정원 원년 10월 辛巳(9일) 조, 351쪽; 『자치통감』 권  
 232, 정원 원년 9월 조, 7467쪽.

이 죽자 軍人들이 河朔舊事를 본받아 유제에게 부친을 이어 帥가 되길 청하였고 조정은 잠시 便安에 힘쓴다고 하여 이에 따랐다. 승진하여 檢校兵部尙書에 이르렀다.

[덕종] 정원 5년(789) 左僕射·充幽州節度使로 승진하였다. 당시 烏桓·鮮卑가 자주 변경을 침략하자 유제가 군대를 이끌고 擊走시켜 깊숙이 1천여 리를 들어가 노획한 것이 셀 수 없었고 東北이 편안해졌다. 정원 연간에 조정에서 藩鎮을 優容하는 것이 바야흐로 심하자 兩河에서 마음대로 스스로 繼襲하는 자는 더욱 驕蹇하고 法을 받들지 않았다.<sup>141)</sup> 다만 유제가 가장 힘써 恭順하고 朝獻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덕종이 또한 恩禮로 대우하였다. 얼마 후 同中書門下平章事가 더해졌다. 順宗이 즉위하여 다시 檢校司徒로 승진시켰다. [헌종] 원화 초기 [원화 원년(806) 6월]<sup>142)</sup> 兼侍中이 더해졌다. [원화 2년(807) 8월] 劉濟·王士眞·張茂昭가 사사로운 틈으로 다투어 번갈아 表를 올려 죄를 가하길 청하였다. 무일일 給事中 房式을 幽州·成德·義武宣慰使로 삼아 화해시키게 하였다.<sup>143)</sup> [원화 4년(809) 10월] 조서를 내려 王承宗을 토벌할 때 [원화 5년(810) 정월] 諸軍이 나아가지 않았으나 유제는 홀로 솔선하여 군대를 전진시켜 擊破하여<sup>144)</sup> 300여 인을 생포하고 1천여 급을 참살하였으며 逆將을 궁궐에 바치자 優詔를 내려 칭찬하였다. 또 詩 4韻을 지어 헌상하여 忠憤의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듬해(원화 5년) 봄<sup>145)</sup> 大軍을 이끌

141) 『자치통감』 권235, 정원 12년 2월 조, “乙丑(3일), 以渾瑊·王武俊並兼中書令. 己巳(7일), 加嚴震·田緒·劉濟·韋臯並同平章事, 天下節度·觀察使, 悉加檢校官以悅其意”(7570쪽).

142) 『자치통감』 권237, 원화 원년 6월 조, “加盧龍節度使劉濟兼侍中. 己亥, 加平盧節度使李師古兼侍中”(7633쪽).

143) 『자치통감』 권237, 원화 2년 8월 조, 7639~7640쪽.

144)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정월 조, “劉濟自將兵七萬人擊王承宗, 時諸軍皆未進, 濟獨前奮擊, 拔饒陽·束鹿”(7671쪽).

고 瀛州에 머물며 누차 樂壽·博陸·安平 등의 縣을 공격하여 전후로 俘獲을 많이 바쳤다. 賞功이 자못 두터웠고 또 자손 4인에게 6품관을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에 걸렸는데, [원화 5년 7월] 마침 왕승종을 사면하고 공을 기록하여 兼中書丞에 제수하였다.<sup>146)</sup> 유제가 변진을 20여 년 동안 다스리면서 비록 忠款을 보였지만, 끝내 입조하지 않았다. 또 그 동생 [劉]濼을 죽이려고 도모하자 [덕종 정원 10년(752쪽) 정월]<sup>147)</sup> 유옹은 나라에 귀순하여 信臣이 되었다. [원화 5년 7월] 유제가 질병에 걸리자 차남 [劉]總이 유제의 親吏인 唐弘實과 함께 通謀하여 유제를 酖殺하고 며칠 후 발상하였다.<sup>148)</sup> 그때 나이가 54세였는데, 조서를 내려 太師로 추증하고 3일 동안 廢朝하고 많은 賻禮를 내리며 시호를 莊武라고 하였다.

동생 [劉]源<sup>149)</sup>은 정원 16년(800) 8월에 檢校工部尙書·兼左武衛將軍이 되었다. 이전에 [정원 16년 7월]<sup>150)</sup> 涿州刺史가 되었으나 형의 敎수를 받지 않자 유제가 상주하여 漠州參軍으로 좌천시켰으나 또 조서를 받지 않았다. 유제가 군사를 이끌고 탁주에 이르자 유원이 병사를 내어 항거하였으나 싸움이 붙기도 전에 스스로 畱산하였다. 유제가 유원을 사로

145)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810) 3월 조, “諸軍討王承宗者久無功, 白居易上言, 以爲, …… [호삼성 주: 按劉濟時軍瀛州而攻樂壽. 樂壽時屬深州, 在瀛州南六十里]”(7672쪽); 同 5월 조, “乙巳, 昭義軍三千餘人夜潰, 奔魏州. [호삼성 주: 潰奔者, 盧從史之黨也] 劉濟奏拔安平”(7676쪽) 등이 보인다.

146) 『신당서』 권7, 헌종본기, 원화 5년 7월 조, 211쪽;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7월 조, 7677~7678쪽.

147) 『자치통감』 권234, 정원 10년 정월 및 2월 조, 7553쪽.

148)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7월 조, 7678쪽.

149) 『구당서』 권212, 劉源傳, 3901쪽.

150) 『자치통감』 권235, 정원 16년 7월 조, “盧龍節度使劉濟弟源爲涿州刺史, 不受濟命, 濟引兵擊擒之”(7591쪽).

잡아 幽州에 이르러 上言하여 입조시키길 청하였으므로 官을 수여하여 불렀다.

[劉]總은 유제의 두 번째 아들인데, 성품이 음흉하고 속임수가 있었다. [헌종] 원화 5년(810) 유제가 조서를 받들어 王承宗을 토벌할 때 장자 [劉]緄을 임시로 副使로 삼아 留務를 다스리게 하였다. 당시 유충은 瀛州刺史였는데 유제가 行營都兵馬使로 삼고, 饒陽(즉 深州)<sup>151)</sup>에 군사를 주둔시켰으나 출병한 지 오랫동안 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원화 5년(810) 7월] 유충이 몰래 그 틈을 엿보아 判官 張玘와 孔目官 成國寶 및 帳內小將과 함께 모의하여 거짓으로 자신들이 경사에서 이른 것으로 꾸며 말하길 “조정에서 相公이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副大使를 절도사에 임명한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또 使人이 말하길 “부대사의 旌節이 太原에 도착했다”라고 하고, 또 使人이 달리며 외쳐 말하길 “정절이 代州를 지났다”라고 하였으므로 모든 군인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유제가 놀라 두려워하며 憤怒하였으나 어쩔 방법을 몰라 이에 병사를 지휘하는 大將 수십인 및 유곤과 평소 친한 자를 살해하고 유곤을 부르며 張玘의 형 [張]臯에게 대신 留務를 맡게 하였다. 유제는 아침부터 해가 기울 때까지 식사를 하지 못해 갈증이 나서 음료를 찾자 유충이 독을 넣어 올렸다. 유제가 죽고 유곤이 涿州에 이르자 유충이 부친의 명이라고 꾸며 杖殺하고 유충이 마침내 軍務를 다스렸다.<sup>152)</sup> 조정은 그 일을 알지 못하고 斧鉞을 내려주었고 승진하여 檢校司空에 이르렀다.

왕승종이 다시 명을 거부하자 유충이 병사를 보내 賊의 武強縣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군대를 주둔시켜 나아가지 않고 兩端을 취하면서 조정

151) 『신당서』 권39, 지리지3, 河北道, 深州·饒陽郡 조, 1016쪽.

152) 『자치통감』 권238, 원화 5년 7월 조, 7678쪽.

이 供饋하는 賞賜의 이익을 얻었다. 이때 吳元濟는 아직 살아 있었고 왕승종은 바야흐로 跋扈하여 易定이 고립되어 위태로웠기 때문에 현종이 잠시 姑息에 힘써 [원화 11년(816) 11월] 유충에게 同中書門下平章事를 더해주었다.<sup>153)</sup> [원화 12년(817) 10월] 오원제가 사로잡히고 [원화 14년(819) 2월] 李師道가 효수되고 [穆宗 원화 15년(820) 10월] 왕승종이 근심으로 죽고 [원화 15년 10월] 田弘正이 鎮州로 들어가자 유충은 黨援이 없어져 두려움을 느껴 매번 自安의 계책을 모의하였다. 이전에 유충이 弑逆한 후 매번 父兄이 귀신이 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심히 慘懼하여 官簿 뒤에 승려 수백을 두고 의식을 후하게 주어 주야로 은혜를 구하고 사죄하게 하였다. 매번 공무에서 퇴근하면 道場에서 쉬었고 만약 다른 방에 가면 두려워서 감히 잠들지 못하였다. 만년에 慙慙가 더욱 심해졌기 때문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기를 청해 禍를 벗어나길 바라고 이에 [장기의 형] 判官 장고를 留後로 삼았다. [목종 長慶 원년(821) 2월 계유일] 유충이 머리를 깎고 表를 올려 조정에 귀순하자<sup>154)</sup> [3월] 목종이 天平軍節度使에 제수하고 머리를 깎았다는 소식을 듣고 紫服을 하사하며 大覺師라는 칭호를 내렸다. 유충이 易州 경계[界]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卒하였다.<sup>155)</sup> 5일 동안 輟朝하고 太尉로 추증하며 날짜를 택해 예를 갖추어 冊命하고 부의로 絹布 1천 5백 段과 米粟 5백 石을 주었다.

앞선 원화 연간 초에 왕승종이 명을 거부하자 유충의 부친 유제가 征伐의 술책을 갖추어 진술하고 술선하여 출정하기를 청하였다. 군대를 출정시켜 연이어 城邑을 함락시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려 능히 성

153) 『구당서』 권15, 현종본기하, 원화 11년 11월 丙寅 조, 457쪽; 『자치통감』 권239, 원화 11년 11월 조, 7725쪽.

154) 『구당서』 권16, 목종본기, 장경 원년 2월 조, 486쪽; 『자치통감』 권239, 장경 원년 2월 조, 7788~7789쪽.

155) 『자치통감』 권239, 장경 원년 3월 조, 7789~7790쪽.

공하지 못하였다. 유충이 부친을 계승하자 선친의 유지를 잇기를 원하고 또 河朔舊風을 모두 바꾸고자 하였다. [목종] 장경 연간 초에 누차 疏를 올려 입조를 구하고 아울러 다스리는 토지를 분할하길 청한 연후에 조정 에 귀순하였다. 그의 생각으로는 ① 幽·涿·營州를 하나의 道로 삼아 張弘靖에게 다스리게 하고, ② 瀛州·漠州를 하나의 道로 삼아 盧士玫에게 다스리게 하고, ③ 平·薊·媯·檀를 하나의 道로 삼아 薛平에게 다스리게 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軍中의 宿將을 기록해 모두 조정에 천거하여 조정이 그들을 升獎하기를 희망하고 幽薊의 사람들이 모두 爵祿을 희구하는 뜻을 갖게 되도록 하였다. 疏가 올라가자 목종이 빨리 范陽을 얻고자 하고 또 재상 崔植·杜元穎은 또 장구한 經略 대계가 없어 단지 장흥정에게 수여하는 지위를 높이고 그 형국[使局]를 능히 성찰하지 못하였다. 다만 瀛·漠 두 주는 觀察使를 두게 하고 기타 郡縣은 모두 장흥정에게 다스리게 하였다. 당시 유충이 추천한 將校는 또 모두 京師의 旅舍에 있었는데,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그때 朱克融과 같은 무리는 겨우 의복을 빌리고 음식을 구걸하면서 매일 中書로 가서 官을 구하였으므로 어려움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장흥정이 제수되자, 또 명하여 모두 本軍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주극용과 같은 무리는 비록 돌아갈 수 있었지만, 모두 원한을 깊이 품었고

156) 그 후 [장경 원년 7월] 과연 叛亂을 일으켰다.<sup>157)</sup>

유충이 土地를 나라에 바치자 그 동생 [劉]約과 아들 등 11인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郡符(즉 주 자사)를 받고 命服이 주어진 자가 5인, 朝班에 올라 宿衛를 도운 자가 6인이다.

156) 『자치통감』 권239, 장경 원년 6월 조, 7792~7793쪽.

157) 『구당서』 권16, 목종본기, 장경 원년 7월 조, 490쪽; 『신당서』 권8, 목종본기, 장경 원년 7월 조, 223쪽.



VIII. 『신당서』 권212, 劉濟·劉總傳<sup>158)</sup>

유제는 字가 濟이다. 京師에 游學하여 進士에 급제하고 莫州刺史를 역임하였다. [劉]忻이 병들자 조서를 내려 유제에게 州事를 假하게 하였다. 유평이 죽자 절도사를 이어받고 승진하여 檢校尙書右僕射·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다. 奚가 자주 변경을 침범하자 유제가 격파하고 1천여 리를 窮追하여 靑都山에 이르러 2만 급을 참살하였다. 그 후 또 檀·薊의 北鄙를 침략해 왔으나 유제가 군대를 이끌고 室韋와 함께 격파하였다.

왕승종이 叛하자 유제가 諸將을 소집하여 말하길 “천자께서는 내가 趙(즉 成德)를 원망하는 것을 아니 필시 나에게 토벌하게 할 것이고, 趙는 또 크게 나를 대비할 것인데, 어찌하면 좋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裨將 譚忠이 유제를 자극해 왕승종을 토벌하게 하기 위해 재빨리 말하길 “천자는 우리에게 趙를 토벌하게 하지 않고 趙 역시 燕(즉 幽州)에 대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자, 유제가 화를 내며 옥에 가두었다. 사람을 보내 趙를 살펴보니 과연 대비하지 않았다. 며칠 후 조서가 내려와 유제에게 출병하지 않도록 허락하였다. 유제가 담충을 풀어주고 사죄하며 문자 담충이 말하길

昭義 盧從史는 겉으로 燕과 친하지만 속으로는 증오하고, 겉으로 趙와 단교하였지만 속으로는 좋은 관계이다. 지금 趙를 위해 계책을 내면 “燕은 趙를 의지하여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비록 심히 원망한다고 해도 반드시 趙를 해치지 않을 것이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다. 趙가 燕에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노총사는 천자에게 고해 말하길 “燕과 趙는 오랫동안 서로 원한

158) 『신당서』 유제전은 5974~5975쪽, 유충전은 5975~5976쪽에 보인다.

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趙가 토벌되면 燕에 대비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燕이 도리어 趙와 좋은 관계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천자가 그대[君]에게 趙를 토벌하지 않게 하고 趙 또한 燕에 대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유제가 말하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하자 답하길 “지금 천자는 왕승종을 주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였으나] 燕에서는 병사 1인도 易水를 건너지 않고 있는데, 이는 潞人(즉 노중사)으로 하여금 趙에 은혜를 팔고 황제에게 충성을 판매하게 하는 것이다. 그대[君]는 忠誼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趙와 사사로이 소통한다는 이름을 얻어 끝내 趙에 덕을 베풀지 못하게 되어 나쁜 소문이 천하에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자 유제가 그렇게 여기고 병사 7만을 이끌고 諸軍보다 먼저 출전하여 수천 급을 참살하고 또 饒陽을 함락시킨 후 瀛州에 주둔하였다. 이어 나아가 安平을 공격하였으나 오랫동안 함락시키지 못하자 유제가 次子 [劉] 總에게 명해 병사 8천을 거느리고 먼저 [성벽을] 올라가게 하여 정오에 그 성을 함락시켰다. 마침 왕승종이 사면되고, 中書丞으로 승진되었다.

유제가 출병할 때 장자 [劉] 緄에게 留務를 攝하게 하고 유충을 行營都知兵馬使로 삼았다. 유제의 병이 깊어지자 유충이 좌우의 張玘·成國寶 및 帳內的 親近과 함께 유제를 살해하려 모의하고 이에 사람을 시켜 거짓으로 京師에서 왔다고 하며 말하게 하길 “조정은 공이 앞서 瀛州에 주둔하며 머뭇거렸다고 여겨 조서를 내려 副大使에게 절도사를 대신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다음날 또 사람을 시켜 말하길 “조서와 부절이 太原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또 사람을 시켜 말하길 “代[州]를 지났다”라고 하자 모든 군인이 놀랐다. 유제는 크게 화가 났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병사를 주관하는 大將 수십 인 및 평소 유곤과 친한 사람을 주살하고 급히 유곤을 부르며 장기의 형 [張] 臯에게 대신 留事를 맡게 하였다. 유제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식사를 하지 못해 갈증이 나서 음료[飮漿]를 찾았는데, 유충

이 관리[吏] 唐弘實을 시켜 독을 넣게 하니 유충이 마시고 죽었다. 그때 나이가 54세였다. 유곤이 涿州에 이르자 유충이 유제의 명이라고 속여 살해하였다. 이에 발상하니 太師로 추증하고 시호를 莊武라고 하였다.

유충은 성격이 음험하고 속임수가 있었다. 부친을 독살하고 바로 軍政을 다스렸는데, 조정에서는 그 간악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서를 내려 절도사를 잇게 하고 楚國公에 봉하며 檢校司空으로 승진시켰다. 왕승종이 다시 명을 거부하자 유충이 병사를 보내 武彊을 함락시킨 후 군대를 통제하여 兩端을 취하고 사사로이 [조정이 내리는] 비용을 챙겼다. 헌종이 이를 알고서 겉으로 총애를 보여 同中書門下平章事로 승진시켰다. 吳元濟와 李師道가 평정되자 왕승종이 근심으로 죽고 田弘正이 鎮州로 가자 유충은 지원 세력이 없어져 크게 두려워하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또 부형이 자주 귀신이 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승려 수백 인에게 의식을 제공하며 주야로 기도하여 재앙을 물리치게 하고 유충은 祠場에서 휴식하면 잠시 안정되었다. 하지만 침실[臥內]에 거처하면 바로 놀라 잠들지 못하였다. 晩年에 더욱 참혹해져 머리를 깎길 청하고 승려 옷을 입고 부정을 없애려고[祓除] 하였다.

담충이 다시 유충에게 유세하여 말하길 “천지의 운행[數]이란 합하면 반드시 나누어지고[離] 나누어지면 반드시 합해진다. 河北이 천하와 나누어진 지 60년인데, 시간이 다하면 반드시 합해진다. 앞서 朱泚·[李]希烈이 자립하고 趙·冀·齊·魏가 왕을 칭하고 郡國이 병사를 농단하면서 조정을 가볍게 볼 때[低目相視]는 가히 위태로웠지만, 끝내 무사히 넘겼다. 元和 연간 이래 劉關·李錡·田季安·盧從史·齊·蔡가 강해도 후자는 머리가 都市에 매달리고 후자는 유형에 처해진[逐客] 것을 모두 그대도 보았을 것이다. 지금 군대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고 趙人은 이미 德·棣의 12城을 바치고 魏를 도와 齊를 격파하였다. 다만 燕이 하루의 수고로움도 없는데,

후세에 무사할 수 있겠는가? 그대를 위해 우려한다”라고 하자 유충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 하고 疏를 올려 朝請을 받들길 청하고 또 관하 영역을 세 개로 나누어 ① 幽·涿·營을 하나의 府로 삼아 張弘靖에게 다스리게 하고, ② 瀛·莫을 하나의 부로 삼아 盧士玫에게 다스리게 하고, ③ 平·薊·媯·檀을 하나의 부를 삼아 薛平에게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 또 宿將의 이름을 모두 적어 조정에 천거하였다.

마침 穆宗이 현명하지 못하고 재상 崔植·杜元穎은 遠謀가 없었기 때문에 장흥정을 총애하여 그 권한을 높이기 위해 유충의 토지를 전부 다스리게 하고 다만 瀛·莫을 나누어 觀察使를 설치하였다. 유충을 檢校司徒·兼侍中·天平節度使에 제수하였다. 또 승려 옷을 하사하며 大覺이라 칭하고, 그 저택에 榜을 붙여 佛祠로 하였으며 사신을 보내 부절과 인장을 보내주었다. 그때 유충은 이미 스스로 머리를 깎아 부절과 인장을 사양하고 마침내 승려 옷을 입고 가다가 定州에 이르러 죽었다.

이전에 유충이 자신을 교체하길 청하며 말 1만 5천 필을 바치자 군인들이 혹 거짓인지 모른다고 의심하였으나 황제가 홀로 그것을 받아들여 給事中 薛存慶을 보내 宣慰하며 관하 지역의 1년 부세를 면제해 주고 군인들에게 緡錢 백만을 하사하여 위로하였다. 또 나이가 많거나 홀로 있는 자 및 능히 생존이 어려운 자는 官吏가 안부를 묻고 粟帛을 내리게 하였다. 유충이 마침내 담충과 함께 떠나려 하자 軍中에서 대대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생각하여 만류하였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다. 유충이 주모자 10인을 죽이고 부절을 張臯에게 준 후 야간에 길을 떠나니 새벽녘에 군인들이 알게 되었다.

조서를 내려 太尉로 추증하였다. 아들 [劉]礎와 동생 [劉]約이 長安에 이르니 모두 11인이었는데, 모두 州刺史로 발탁하였다. 담충은 유충의 喪을 호송하여 이르렀는데, 그 역시 죽었다. 담충은 絳 사람으로 용병을 좋아하고 謀事를 잘하였으며 대략 군센 남자로 칭해졌다.